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겸 전태현
주간
편집장 강민홍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대학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4189
인쇄인 송재봉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주간]
THE OE DAE HAGBO
제650호 1995년 10월 4일 (수)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지면안내

3면(심층보도)
용인 강의시간표 변경, 그 대안은
이번 학기 용인에만 4백건, 학생은 몇천명이나 되는 강의시간표 변경, 그 폐해와 극복방안을 살펴본다.

4면(학술기획)
김일성 사후 1년 북한은 지금
김일성 체제에서의 대외·대남 정책의 변화와 남북정상회담의 전망을 진단해 본다.

6면(생활문화)
북학생 끌어안기
군복을 벗고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은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달라진 정서와 후배들의 무관심·편견을 극복하고 열린 마음, 열린 공간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7면(문화)
'꿈의 복원' '95 세민제

지난 84년 제7회로 막을 내린 세계민속예술제전이 오는 6일 서울캠퍼스에서 부활한다. 전설처럼 내려온 외대의 화려한 전통으로 손꼽혔던 세민제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전 외대인이 하나되는 자리로 마련된다.

8면(사회보도)
사회곳곳의 역사 바로잡기
검찰의 7·18 불기소 처분 이후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의 그간 활동을 정리한다.

9면(사회기획)
화려한 말잔치
김영삼 대통령은 야당 의원시절 자신이 5·18진상규명의 적임자라 자부했다. 김대통령의 광주 관련 발언을 소개한다.

10면(대학기획)
교육과정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①
이번 개정안에 핵심사항인 다전공제는 유명무실해질 위험성이 있는 등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진단한다.

1백50여 대학 5·18 동맹휴업

본교도 7백여명 가두시위 참여

본교를 비롯한 전국 1백50여개 대학 학생들은 지난 29일(금)·30일(토) 양일간 '5·18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했다.

29일(금), 학생들은 소속 대학에서 결의대회를 가진 후 중심가로 진출해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서울 등 일부에서는 격렬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서울지역에선 서총련 소속 학생 4만여명이 명동, 충무로, 을지로, 종로, 대학로 등지에서 대대적인 가두시위를 벌였다.

본교 서울캠퍼스에서는 26일(수), 27일(목) 이틀에 걸쳐 '동맹휴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50.67%(3천3백14명)의 투표와 그 중 90.21%(2천9백75명)의 찬성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하였으며 29일(금) 3백명의 학생들이 거리투쟁에 동참했다. 용인캠퍼스 또한 25일(월) 정기총회 때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8명의 식발식과 함께 동맹휴업 결의대회가 진행됐으며, 동맹휴업 당일 4백여명의 학생들이 성남거리시위에 나섰다. 이날 경기동부총련 소속 대학생 3천여명은 성남시청앞 광장에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진뒤 성남 시가지를 돌며 가두시위를 벌였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동맹휴업 이틀째인 30일(토)에도 수만명의 학생·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5·18민주항쟁 정신 계승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5차 국민대회'가 전국각지에서 대규모로 열렸으며 본교 서울과 용인학생들은 각각 대학로와 성남시청 등지에서 시위에 참가했다.

'5·18 학살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백50여 대학은 총 투표를 통해 동맹휴업을 결의하고 전국 곳곳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지난 27일(목) 서울캠퍼스 교문에서 가두진출을 시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한편 동맹휴업에 앞서 본교 서울캠퍼스 8백여명의 학생들은 28일(목) 오후 4시, '김영삼정권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제2차 결의대회'를 가진 뒤 교문앞에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들의 화형식을 가졌다. 이날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지며 가두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인해 저지됐으며 이 과정에서 동양어대 두 명의 학생들이 전투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눈주위가 찢어지는 등 본교생들과 이문동 일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고병권 기자

'꿈의 복원' 세민제 오는 6일

전 외대인이 하나되는 자리

'95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제)이 학술제의 일환으로 오는 6일(금)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꿈의 복원'이라는 모토를 걸고 개최되는 이번 세민제는 동양어대, 서양어대의 어학계열 학과 러시아어과, 중국어과, 베트남어과, 마인어과, 불어과 등 17개과가 참가한 가운데 각국의 민속춤과 원어노래를 선보일 예정이다.

'꿈의 복원'은 과거 화려한 외대의 전통과 자랑이었던 세민제를 올해 다시 부활하고 21세기 외대의 특성과 학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다. 즉 82년 제7회로 막을 내린 세민제의 부활을 통해 각국의 춤과 노래 등을 접하며 예술로 승화시키는 점에서 열린공간에서 각국의 정치·경제·문화적·학술적 토대를 바탕으로 외대의 특성을 살려내고 전통을 세워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후 장기적 목표로 그간 각과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원어노래패, 민속춤패의 연합건설을 바탕으로 이후에도 세민제 준비위를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국외 해외자매결연대학과의 문화교류로 변화된 내용을 담아낸다고 한다. 또 세민제와 학술제를 연계로 지역화의 중심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민제는 4명의 배낭여행객이 동·서양으로 세계여행을 떠나 각국의 춤과 노래,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세민제 준비위원장 김준우(서양·서반아어 3)군은 "짧은 준비기간과 각과의 열악한 상황으로 진정한 복원에는 힘이 부치지만 전 외대인이 세민제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외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되는 장이다"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중앙일보 대학평가, 본교 열세

졸업생 평판도 상위권 차지

지난해에 이어 실시된 중앙일보 대학순위도 조사에서 본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유명대학들에 비해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시순위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대부분 타대학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던 본교는 실험실습 설비와 졸업생 평판도에서만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정교화하고 종합평가 외에 의학 경영학 물리학 법학 전기 전자계 영문학 등 6개학과 평가를 도입했다. 또 교수 교육여건 및 연구, 재정 경영, 시설 도서관, 평판도 등 4개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이번 종합평가를 행한 중앙일보는 작년 12월 대학평가팀을 구성, 자문교수팀과 선진국 대학평가기구를 방문해 평가기법을 조사연구하는 등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미국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기자를 파견하고 설문조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세계 유수대학에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종합순위는 3백점 만점으로 △교수 교육여건 및 연구에 1백점 △재정 및 경영 70점 △시설 도서관 80점 △평판도 50점씩 가중치를 부여, 대표 지표별 순위점수내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점수에 따라 매겨졌다.

한편 본교의 정확한 종합순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재경 기자

빈의자

바로쓰는 역사

▲얼마전 미국 유학을 간 선배가 보낸 엽서를 받았다. 우연히 미국의 한 대학 역사학과 교재 세계사 책을 들춰보았다고 한다. 1천 3백여 쪽에 달하는 세계역사 중 한국편은 3쪽이더란다. '5·18 광주민중항쟁이 1987년에 일어났다'고 씌인 것을 보고 쓴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총 3쪽짜리 우리의 역사 편의 헤드라인은 '자유없는 번영(Prosperity without freedom)'이라고 한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전에 배웠고 진실로 믿었던 역사와 전혀 다른 역사를 대하며 혼동스러웠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왜곡된 우리 현대사를 다시 쓰는, 바로 쓰는 역사 책을 대할 때 2십여년을 거짓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분노는 차라리 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미국에서 날아온 엽서를 받고 당시 내가 받았던 충격이 되살아 났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를 위해 피 흘렸던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87년으로 기록된 것을 본 그 선배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고 한다.

▲지난 28일(목) 서울지역 교사들이 '5·18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 정의를 일으켜 세우고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올바른 교육개혁도 참배움과 가르침도 불가능하다"면서 "무너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우선한다는 믿음으로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에게 정의와 진실은 승리한다는 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들은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순간순간 부딪쳤던 비애와 부끄러움을 끊어내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양심이다. 해방 50주년을 맞는 지금도 친일매국노를 처단하지 못해 오히려 교과서에서 친일파들의 문학작품을 가르치면서 정의를 말하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해 맑은 눈동자로 "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의 작품을 배워야 하나"고 묻을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나.

▲우리들이 겪었던 역사에 대한 혼동과 충격을 이후에 대학을 진학한 후배들이 또 겪지 않아야 한다. 올바른 역사를 오히려 거꾸로 쓴다고 하지 않아도 역사를 다시 써도 되지 않는 올바른 역사를 만드는 일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 시대를 산 사람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이옥선

박교수 가혹행위 사실 증명돼

박창희 교수가 검찰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져 그간 끊임없이 제기됐던 "박창희 교수가 입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박교수의 아들인 박재혁씨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박교수가 안기부·검찰측으로부터 폭력 등에 의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조사 결과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대한변협은 진정서에 대한 조사 결과, 박교수가 지난 5월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중 허벅지와 무릎 등을 계속해서 20-30여차례 구타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기범 검사는 박창희 교수가 안기부에서 조사한 피의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으면서 수갑이 채워져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박교수에게 이러한 구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변협은 검찰총장에게 박교수의 가족이 서울지검에 제출한 이기범 검사의 폭력 등 고발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지난 2일(월) 오후 2시부터는 박교수의 7차공판이 박교수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승주 기자

알 림

10월 3일(화) 발행되어야 할 본보 655호가 개천절 관계로 4일(수) 발행됨을 알립니다.

5·18 끝없는 외침

"탱크가 밀려온다, 엎드려라. 자기 자리를 사수하라"

광주항쟁 때 시민군이었던 김영철씨(47)는 지금 전남 나주시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처절하게 신군부의 탱크와 날마다 교전을 하고 있다.

그는 5월 27일 도청에서 체포되어
미라처럼 밧줄에 둘둘 말려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쓰레기 취급을 받고
나중에는 간첩으로까지 몰리게 된다.
조사과정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심한 구타는
결국 그에게서 정상인으로서의 삶을 뺏앗아가 버렸다.
그러나, 그에게 광주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는 한,
학살자의 죄는 결코 씻기지 않을 것이다.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 설

5·18, 학생들만의 것인가

5·18은 남한 사회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30년간 미국의 지대한 간섭, 20년간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폭압적인 통치 하에서 진정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광주 시민들의 피맺힌 절규였다. 신군부의 군화발과 남한에서의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려는 미국의 음직임에 모든 국민들이 절망의 한숨을 내쉴 때, 과감하게 "미국을 반대한다" "신군부는 물러가라" "민주정부 수립하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절규가 바로 5·18인 것이다.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기필코 5·18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80년 5월 광주에서 죽어갔던 민주열사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시대적·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지난 29·30일 본교를 비롯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소속 1백40여 대학은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그리고 5·18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전투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뛰쳐 나왔다. 수업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말이다.

반면 지난 9월 25일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5·18책임자 기소를 촉구하는 대학교수와 학생들의 서명운동 및 시위와 관련해 "동맹휴업으로 인한 수업결손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동맹휴업이고 뭐고 상관없으니 수업을 빠지면 각오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몇몇 교수들은 수업을 강행, 5·18 동맹휴업에 참가한 학생들을 결석처리했다.

5·18책임자 처벌은 과연 누구의 임무인가? 학생들의 임무인가? 누구보다도 선봉에서 민족적·역사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는 못할 망정, 동맹휴업에 단호한 대처라니? 동맹휴업을 결의한 날짜에 수업을 강행하는 교수들의 모습이라니….

5·18책임자 처벌은 학생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전국민의 목소리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앞장서 5·18책임자 처벌을 외쳤다면 이제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학생들의 용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투자미흡이 낳은 순위

사립대학 법인들이 막대한 수익용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학교 운영비로 내는 전입금이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지난 25일(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사학재단이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의 수익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교육부에 보고해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적으로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지대 사태를 접하면 사립대 재단의 현실이 올 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립대라면 재단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은 대학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외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얼마전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95 전국 대학 평가'의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조사 결과 외대가 10위 안에 든 항목은 학생들의 인성·직무수행능력과 계열·지역별(인문계열) 인식 설문조사 두가지였다.

즉 교육재정, 교육 내용, 교육 환경, 연구 기능에 대해 본교가 상위권에 든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그나마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학생들은 우수하다'라는 것이다.

작년에도 중앙일보에서 똑같은 대학 평가를 했는데 그 때도 10위 안에 든 것은 학생들과 관련된 국가고시 합격자수(9위), 상장기업 대표이사수(8위)라는 항목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재단과 대학당국의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매년 5%내외인 본교 재단 전입금 실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외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 외대인의 열정과 재단의 성실한 투자만 선행된다면 말이다.

흡산의 소리

외대인들의 열린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외대라는 공동체 살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백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눕시다.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받습니다.
(천리안 OEDAE, 하이텔 OEDAE, 나우누리 OEDAE 모두 동일)
원고에 소속 과·학년·이름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열린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합시다.

조그만 행동부터 예의를…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수업시간에 조용이 하라'는 말일 것이다. 선생님의 조용하라는 말에 국민학생들은 왜 조용히 해야 하는지 알아서가 아니라, 선생님의 회초리가 무서워 조용이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유로 그 학생들의 민주 사회 일원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의심한다든지, 교육정도를 따진다든지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민학생이고 국민학교란 곳이 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사회의 규범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대학이라는 곳은 사회의 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 중에 복도에서 선거유세라도 하는 양 큰 소리로 떠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싶은 적이 어디 한 두번이랴! 시끄러워 교수와 학생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수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분명 복도에서 소란스럽게 얘기하고 잡난치는 학생들은 국민학생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마친 대학생이다. 그들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질 문제를 의심받아야만 하며 가능하다면 초등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 옛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평가를 받던 민족의 후예이다. '예의'라는 치원에선 우리가 외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외국인 교수들이 강단에서 강의하다가 복도에 나와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자각하자. 위의 문제제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기에 좋은 까리같다.

이상현(동양·인도어 2)

역사앞에 당당한 외대인으로

정부의 5·18책임자 불기소 발표 이후 많은 민간·종교단체 등에서 함의·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본교에서도 지난 8월초 1백 6명의 교수가 검찰의 5·18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총학생회는 지난주에 있었던 제1차 결의대회 이후 각 단대·과 학생회장들이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그런데 처음으로 참여했던 지난 1·2차 규탄 결의대회를 통해서 난 이처럼 여러곳에서 끊임없이 계속됐던 항의시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너무나 적은 학생들만이 결의대회에 참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18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인지 또 5·18 책임자 불기소 판결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결의·규탄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는 소위 '운동권'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국의 여러 민간단체들이 특별법 제정을 소리치고 있다. 그리고 교수단 및 총학도 성명서와 단식투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학생회나 교수들만의 투쟁 아닌 바로 우리 외대인 전체가 함께하는 투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왜곡된 역사는 우리 전국민이 하나로 뭉쳤을 때만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동맹휴업 이후로도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외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역사 앞에 당당한 외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춘성(서양·포르투갈어 1)

나이 30이 정년, 결혼이 해고라 우리보다 심하군 -588-

백지 제자보

주제: 본교 한 여직원이 결혼을 이유로 해고 당했다는데

아니 그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야? 참 유감이구먼
-총장-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L에이레네-

결혼한 여교수님들은?
- 여교수 응호자 -

어디 무서워서 결혼하겠나
-독신자-

총장은 결혼 안했냐!
-노조-

가뜩이나 장가가기 힘든데 망했다
-전·노·협-

우리 학교는 나빠
-유치원 생도-

외대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H-

살다보니 별의별 일이! 그것도 대학에서
-분노한 예비취업자-

말도 안된다. 남자 직원은 결혼 안하나?
-M-

심하다. 애 가질때까지만 봐주지
-보모-

□ 외대학보를 읽고…

물방울 무늬 옷, 일어에 더 가까워

외대학보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 기사중 하나는 〈우리말 연구회〉에서 제공하는 〈우리말 속 일본말〉이다.

지난 주 외대학보 7면 하단에 실린 〈뺑뺑이 옷〉에 대한 기사에 수긍할 수 없어 글을 쓴다.

거기에는 〈뺑뺑이 옷〉이 일본말이며 우리말로는 '물방울 무늬 옷'으로 불러야 한다고 하였는데, 내가 알기로는 오히려 '물방울 무늬 옷'이란 말이 더 일본말에 가깝다.

일본에서는 그러한 무늬를 가리켜 'みずたま(미즈타마)'라고 하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바로 '물방울'이란 뜻이다. 그리고 'フル(흐루)'가 점을 가리키는 일본말이라 하였는데 'テン(텐뗑)'의 표기를 틀린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어로 '텐뗑'은 '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뺑뺑'이라고 하지 않고, '미즈타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뺑뺑'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말로 고치려 한다면 '물방울 무늬 옷'보다는 '점무늬'같은 것이 좋겠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외대인 누구나가 일어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어의 카타카나로 쓴 글에 우리말 발음을 달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김진후(서양·러시아어 2)

해고 여직원, 마땅히 복직돼야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해고된 김은주 양의 소식을 접하고,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지만 우리 학교안에서도 이렇게 상식밖의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김양이 결혼을 이유로 해고당한 것은 노동여성의 평생노동권과 생존권을 박탈·침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의한 것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90년에 합의한 '만 30세를 정년으로 하며 결혼과 동시에 퇴직한다'라는 조항만 내세우고 있는 대학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김양은 마땅히 복직되어야 하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당국은 남녀차별이라는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진정한 진보의 길을 가야할 것이다

더불어 평등하게 사는 사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정지민(동구·황가리어 3)

윤여웅
〈카톨릭대 교수, 영어 61〉

□ 특별기고 - 세민제의 부활을 고대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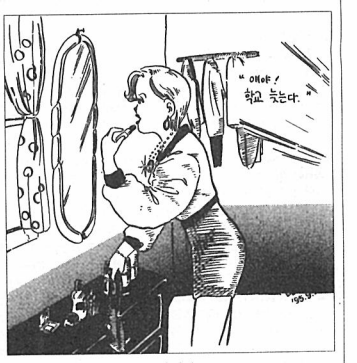
"전공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협동심을 배양하는 세민제로…"

글쓰는 이는 본래부터 국민학교의 학예회, 중고등학교의 예술제 그리고 대학의 축제가 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칸트가 주장하는 노동과 놀이의 중요성을 배제하더라도 요즈음 같이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산업사회에서 놀이는 노동을 능가하는 가치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의 낭만은 물론 참여자의 상상력과·협동심을 배양시킨다는 점에서 놀이를 위한 집단 창작행위는 젊은이들에게 더할나위 없는 교육기능을 갖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특히 외대가 갖고 있는 외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나라의 민속예술을 바탕으로 세민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참여자 뿐만 아니라 관람자들에게도 해외문화 습득이라는 교육적 기능과 홍보적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교가 80년대 종합대학교가 되고부터 그동안 전통적으로 실시하던 원어연극과 세민제 행사가 위축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면 개교와 더불어 실시된 원어연극, 그리고 70년대부터 시작된 세민제는 참여하는 외대생은 물론 이를 관람하는 사회 각계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으며 어떤 경우에는 그때를 기점으로 대상국의 문화를 습득하는 열기로 가득찬 영광의 시절을 갖고 있었으니 예를 들면 50년대 서반아어과에서 실시한 원어연극을 본 사람을 중심으로 스페인 음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60년대 영어과 원어연극을 본 S대의 외국인 총장 신부는 매년 그 행사를 기다리는 팬이 되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80년대 개최된 세민제 행사때는 군사정부의 삼엄한 경계속이었지만 너무나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됐기 때문에 광화문 주위를 경비하던 당국자들이 너무 당황하였던 반면 이 행사를 관람하던 학부형과 주한 외교사절들의 찬사는 필설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여서 당시의 공연 필름이 1988년 올림픽 행사 전야제에 다시 방영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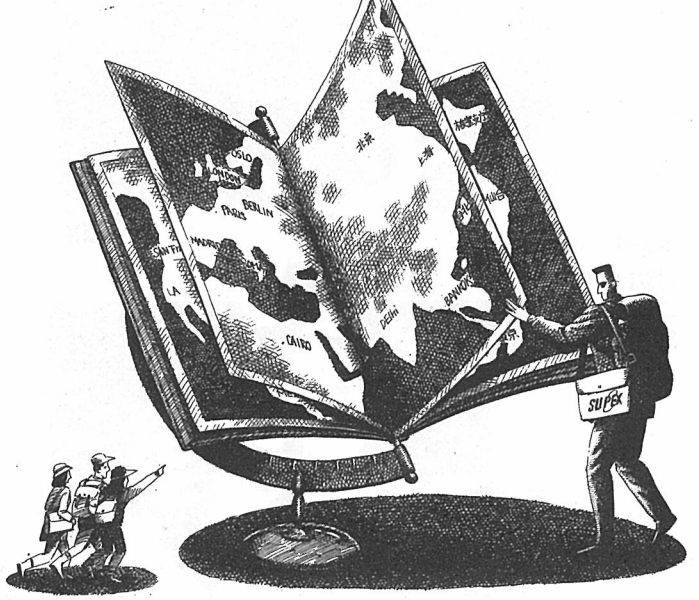
이제 성년의 모교 외대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세민제와 원어연극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무한한 찬사를 보내면서 부디 금번의 세민제가 재충전의 기폭제가 되어 화려하고 알찬 세민제가 되줄 것은 물론 이 집단 창작행위를 통하여 전공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참여자 모두가 협동심을 배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독자만평



간 큰 남자가 본 요즘 여학우 송근우(서학·영어 3)

선경의 세계화 전략은 수펙스 추구입니다



지금은 세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장차 세계를 무대로 뛰실 땐
한국인이 되십시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까지 활짝 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앞서 생각하고 앞서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아 맹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의 준비가 10년 후, 20년 후
내 모습을 좌우합니다. 세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내 노력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추구하면서
경쟁우위에 서십시오.

'대학시절 중에 외국어 2가지 이상은 마스터 하겠다'든지, '배낭여행을 통해 세계 10개국 정도는 다녀오겠다'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이러한 수펙스 추구가 모여 이 사회, 이 나라의 수펙스 추구로 이어집니다.

SUPEX IS...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서 확실한 경쟁우위에 서기 위한 선경 특유의 경영전략으로, 지금의 세계일류 기업들이 앞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 즉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 (SUPER EXCELLENT LEVEL)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SUNKYONG
鮮京그룹

□ 강의시간표 변경, 대안은 무엇인가

용인만 4백건 … 학생은 몇천명

용인 전담교수제 도입 추진돼야

'양캠퍼스 단일교수체제로 동등한 강의의 질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본교 교수순환제가 용인캠퍼스 교수 공동화현상과 맞물려 강의시간표 변경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인캠퍼스 전임교수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담당교수와 강의시간 변경으로 인한 혼선은 학생들의 시간표 재작성, 개강 1-2주간 정상적인 수업불가, 이로 인한 강의시간 감소 등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용인캠퍼스 교무처는 강의시간표 변경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교수들에게 발송해 왔다. 그러나 강의시간표 변경문제는 '교수순환제'가 지니는 한계로 인해 끊임없이 되풀이돼 왔다.

이번 학기 용인캠퍼스 교무처가 발표한 강의시간표 변경 사례는 담당교수 변동으로 인한 연쇄적인 변동 △담당교수 개인사정(보직 또는 개인사항) 2백건 △교수변동(휴직, 연구년), 신규임용 44건 △강사의 전 출입(타대학 취직 등) 38건 등이다. 이밖에도 타 영역시간 중복(수강신청상의 제문제 및 학생편의 도모 등)이 46건, 강의실 변경이 22건 등으로 이번학기 강의시간표 변경 총사례는 총 4백여건이나 된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도 개강초에 담당교수 시간변경 사례 총 1백60건을 조사, 교수 안식년, 교수책임시간 초과, 서울캠퍼스 학과장 보직, 다른 과목과 시간 중복 등으로 인한 강의시간표 변경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경사례가 없는 모범학과로 플란드어루마니어 향가리어 유고어 아프리카어 무역학 경제학과 및 자연계열 전학과를 꼽았다.

강의시간표 변경이라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용인캠퍼스 전임교수제를 신규임용교수 채용에서부터 도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교무처는 양캠퍼스 단일체제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내에서 캠퍼스별 '전담교수제'의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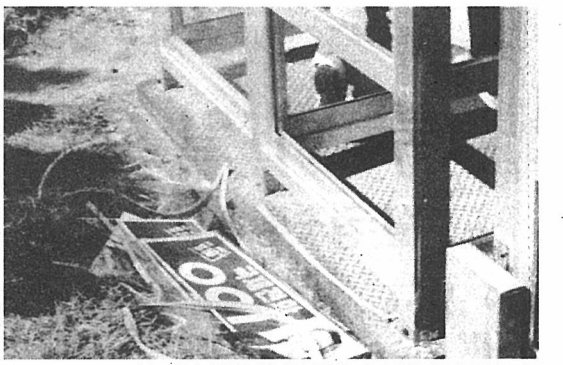
그러나 양캠퍼스 단일체제라는 큰 틀 아래서 전담교수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재의 폐해를 극복하는데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용인캠퍼스 교무처 한 관계자는 "용인캠퍼스의 점차적인 전임교수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이는 전체교수 사이에서의 분위기 미성숙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혀 무엇보다 전체교수들간의 공개적인 논의와 합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외대발전 5개년 실천계획에는 교수순환제로 인한 교수방지화를 위한 대책으로 △순환근무기간의 연장(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순환근무교수의 서울캠퍼스 보직과 연구실 배정 금지 △신규채용교수 용인캠퍼스 연구실 배정 △1일에 한한 서울캠퍼스 출강 △용인캠퍼스 상주교수 유인(용인캠퍼스 보직교수와 순환근무교수는 의무적으로 주당 3일 이상 용인캠퍼스에 상주토록) △대학원 일부학과의 용인캠퍼스 이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전임교수제'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간과돼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일(월)·5일(화) 용인캠퍼스 양일간 수강신청 확인과 변경기간이 연장된 것과 관련, 용인캠퍼스 교무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연장했다"라며 "앞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임성은(동학·아랍어 4)군은 "이는 잦은 강의시간표 변경으로 인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근영 기자



도망간 지성 지난 30일(토) 아침 붉은광장 옆 공중전화 부스 유리가 두 군데나 깨져 있었다. 매번 부서지는 공공기물이 외대인의 지성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유정 기자

□ 열리총장실(9/27)

"학생참여 없는 개정은 생동감 없다"

외대발전의 고민을 하나 둘 담아내는 곳, 열린총장실이 지난 27일(수) 정외과, 서반아어과 학생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회의실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았음에도 예전보다 30분정도 늦게 끝난 열린총장실에선 △세민제 복원 △학자관련사항 △학교행정상 문제 △교육과정개정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오는 6일(금) 열리게 될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제) 준비위원장 김준우(서양·서반아어 3)군은 "외대인의 학교에 대한 애정을 하나로 묶어내는 행사로서 세민제를 기획했다"라며 "지난 세민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술을 기반으로 비어학계열과의 교류를 통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교수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라며 세민제 준비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총장은 "예년의 세민제가 외대와 각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주된 역할은 했으나 개방화된 현시기엔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라며 "학술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다면 예년처럼 세민제가 무산될 수도 있기에 교수들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정성철(법·법학 4)군은 "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컴퓨터 구입은 학생들을 위한 용도로 쓸 것을 확답받았는데 컴퓨터를 학과장실에 설치하기로 결정한 건 모순이다" "단식이후 대학당국과 협의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 "재단 전무이사와의 면담, 왜 안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총장은 이러한 부총학생회장의 질문에 관련해서 "모든 사항을 학생처를 통해 협의하라"고 답변했다.

서반아어과 학생들은 성적증명서상 학점계산이 없어진 점과 학생증 재발급이 화요일 신청 금요일 수령 등 발급기간이 분리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총장은 "지난 졸업생 문제 이후 학생들의 실질적 계산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런것 같다. 불편하다면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고 "학생증은 11월 중으로 ID카드로 바뀐다"라며 발급상 문제가 사라질 것을 얘기했다.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은 열린총장실을 찾는 학생들의 많은 질문속에도 여실히 증명됐다.

"교수충원에 학생들의 참여 부분이 없다" "현 교육과정이 20여년전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불만을 얘기했고 안총장은 "학생의 참여가 없는 교육과정개정은 생동감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과장을 통해 논의하라"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사회과학관 건물앞 가로등 가동 △학생회관 3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설치 △학생식당의자 교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여러 고민을 학생들과 함께 했던 안총장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실무협의를 통해 즉각 시행하겠다"라고 말하며 열린총장실 문을 닫았다.

김재경 기자

공대, '독립운동' 진행중

공준위 4일 출범

내년 용인캠퍼스 자연과학대학 5개학과가 정보산업공과대학으로 분리됨과 맞물려 공대학생회건설을 위한 준비위원회(공준위) 출범식이 오는 4일(목)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자공학과와 제어계측공학과의 통합 산업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로 이뤄지는 공준위는 현재 임시 학생회장으로 조병익(컴퓨터공학 3)군이 맡고 있으며 공대학생회 회원모집과 뺏지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회원모집과 관련, 자대 학생회장 이재규(화학 3)군은 "지금까지 학생들은 그 단대나 과에 소속되어 있으면 저절로 학생회 회원으로 간주되었다"라며 "자기 스스로 학생회 가입신청을 하고 공대분리의 분위기도 만들어가면서 학생들을 진정한 학생회 주인으로 세우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군은 "현재 공대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발전상은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10월말에는 학술제와 함께 공대분리를 축하하는 여러 문화행사들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공준위 선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대학당국은 학생회실 배정 등 공대분리에 따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 10월초 교육부의 발표가 있은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 령

임

대학부 정기자
오은진(서양·포어 1)
박철희(서양·서어 1)

사회부 정기자
박병수(인문·사학 1)

문화부 정기자
김태형(법·법학 1)

사진부 정기자
정유정(서학·독어 1)

이상 5명 9월 1일자

□ 용인캠퍼스 취업 '적신호'

특성 살린 다각적 노력 시급

취업정보센터, 후생복지관으로 확대이전돼야

용인캠퍼스 취업정보센터 제반 환경 개선과 서울캠퍼스와 중복되지 않는 특수과의 홍보, 용인캠퍼스의 위상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 등 본격적인 취업철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캠퍼스만의 특성을 살린 취업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해가 갈수록 기업측의 서울소재지대학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기존의 필기시험이 서류전형으로 옮아가고 있는 추세에서 용인캠퍼스의 취업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용인캠퍼스 취업정보센터는 서울캠퍼스에 비해 1/3 밖에 되지 않는 공간의 협소함, '공간배치의 부적절함에서 오는 이용도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용인캠퍼스 취업담당 안상덕씨는 "10명의 학생들만 찾아와도 꽉차 더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캠퍼스 취업정보센터가 안고 있는 제반 환경의 문제점은 현재 용인캠퍼스에 건립중인 후생복지관으로의 확대이전으로 어느 정도 개선될 듯 보인다. 현재 대학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용인캠퍼스 추천장은 요구조건이 없는 경우에 5 : 5의 비율로 배분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추천장이 요구조건을 달고있어 실제로는 8 : 2의 비율로 배분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용인캠퍼스만의 특성을 살린 취업대책이 수립될때 균등한 비율로의 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용인캠퍼스의 자연대, 그리고 배낀에 건설되는 광대를 집중 육성하고 올해 착공되는 외국학 종합연구센터를 시발로해서 지역학의 메카로 자리잡을 때 어느정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캠퍼스 취업담당 강승창씨는 "기업 인사팀이 직접 와서 서울캠퍼스를 요구조건으로 걸고 있다"라며 "이문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인식전환없이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지방소재 제2캠퍼스 취업난의 문제가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속에서 파생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안씨는 "채용방법이 기존의 필기시험에서 서류전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는 10일(화)에는 용인캠퍼스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의 주최로 안병만 총장 취업특강이 열릴 예정이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용인캠퍼스 취업난과 발맞춘 시기에 열리는 총장의 취업특강, 용인캠퍼스만의 특성을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출지 주목할 만하다.

95년도 2학기 전체 학과장회의 열려

실용영어, 교양과정 개편안 96년 확정

서울·용인 65개 학과 학과장들은 지난 25일(월) 95년 2학기 전체학과장 회의를 롯데월드 호텔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선 주요부처별 업무 보고와 안병만 총장의 통역대학원 설립에 대한 설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부처별 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캠퍼스 교무처는 △96학번부터 실용영어, 교양과정 개편안 시행 △교양과목 수강인원 30명 미만일 경우 폐강 △교양·부전공과목 상대평가 적용(C+이하 40%이상) 등을 보고했고, 교육부 각 대학 학사관리 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출석 및 성적관리 허술 △총장 승인없는 타대학 출강 △계절학기 부당성적처리 등의 문제점을 얘기했다. 이외 10월중 각 학과장실에 컴퓨터가 설치됨을 알렸다. 양캠퍼스 학생처는 2학기 총학생회 일정을 알렸고, 쿠웨이트·스위스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처는 △대학종합평가 수검대학 및 수검예정대학 방문결과 발표 △자체평가위원회 제 5차 모임 실시 △위원회 연구활동 예정 발표 △통계연보 작성 등을 보고했다.

— 고 협 —

지난 649호 '결혼이 해고의 사유라니' 기사에서, '92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 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김일성 사후1년, 북한은 지금 ③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변화**

북, 미·일 등 공세적 관계 개선

쌀·경수로 통한 남북회담 … 정상회담 전망 불투명

글싣는 순서

1. 북한의 현 경제상황
2. 북한의 개방 진행과정과 실태
3. 북한의 대외·대남 정책 변화
4. 김정일 체제의 성격과 전망

이 찬 행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94년 남북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남북관계는 진정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쌀·경수로와 관련 제3차 남북 당국자 회담이 진행됐으나 양국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만 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통일을 위한 남북·해외간 대화를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8월 15일 판문각에서 열린 '대민족회의' 장면

판문점으로 가는 길은 멀기만 한가? 시원스레 새로 뚫린 자유로를 통해서 가면 서울에서 불과 한시간도 채 안걸리는 판문점. 3시간 거리인 서울과 평양, 이곳들을 제쳐두고 중국 북경과 말레이지아 콸라룸푸르에서 각각 회담이 열렸다.

쌀은 오고 정치는 가라

지난 27일 열린 3차회담은 1, 2차회담과 달리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는데, 북측의 쌀과 남측의 우성호라는 선결현안문제가 팽팽히 맞서 별 성과 없이 끝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3차회담에서도 전금철 대외경제위원회 고문이 2차에 이어 "우리는 쌀이야, 쌀"이라고 밝혔듯이 북한은 한국정부의 집요한 남북대화 요구 등 한국의 공세에 제동을 걸며 "쌀은 오고 정치는 가라"는 북한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점차 해빙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경 3차회담보다 두 주일 앞서 콸라룸푸르에서는 경수로 공급협정체결을 위해 제 1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의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지난 6월에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북-미고위급회담에서 맺은 경수로합의문에 기초한 것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논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국교수립으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한국전쟁의 당사자였던 북한과 미국이 이제 관계개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북일관계 역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50년간의 대립이 녹아내릴 것 같은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일본의 쌀지원 이면에는 북일관계 정상화라는 지각변동이 자리잡고 있다. 외형상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는 경수로와 쌀을 매개로 하여 '신교차승인' 국면으로 진입할 조짐을 보인다. 경수로와 쌀을 매개로 하여 북미, 북일관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70년대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교차승인 구도가 정립되는 것이다. 과거의 교차승인은 동서냉전구조의 하위구도에 편입된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단의 안정화 또는 두개의 한국으로 이어지는 '분단고착화'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는 신교차승인 구도는 동서냉전구도가 와해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분단의 고착화라는 일면적인 요소만을 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세에 의해 규정받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교차승인은 한반도의 탈냉전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는 두개의 체제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동서냉전이라는 외적 조건이 실종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미수교시대의 첫 거보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남정책과 대외정책이 변화했는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변화했다면 무엇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90년대부터 정세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하기 시작한 대남·대외정책이 김정일시대에선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등등.

북한의 대남정책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 이념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속에서 조국통일이라는 목표와 기본노선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 대외정책은 자주·평화·친선이라는 3대 이념과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이라는 양대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김정일시대에서도 김일성주석 시절과 마찬가지로 정책기조는 변함이 없다. 김정일이 권력승계과정에서 당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총체적 지도와 관장을 해왔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들에 대한 기본 정책들은 새롭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김정일시대에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남·대외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보다 적극적인 대남·대외정책의 추진이야말로 외부로부터의 체제위협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북한이 '북미수교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북미수교시대는 93년 제네바합의문에 도출된 시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 주요의제가 '북한 핵개발' 문제와 미국·북한 간의 관계정상화 문제였다. 이것은 2차대전 후 한반도 분단의 주역이며 한반도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공식적인 정치회담이었다. 사실상 정치회담의 성격이 강한 미국과의 회담에 이어 지난 6월 콸라룸푸르 북-미고위급회담에서 핵동결이라는 카드와 일괄타결 방식으로 핵무기 등 무력불사용 보장·내정불간섭·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지지 등을 합의문에 삽입했다. 이는 북미수교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정치적 승리로 평가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문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다. 세계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전혀 미동도 하지않고 있다. 북경회담은 어찌보면 북한 내부의 수해피해와 식량사정이라는 돌출변수와 한국정부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조급성'이 서로 일치되면서 이뤄진 '작품'이다. 그래서 북경회담의 성격을 북측은 민간차원을, 남측은 책임있는 당국자 논의라고 각각 주장하는 것이다. 회담과정에서도 북측대표 전금철의 직함을 놓고 대외경제위원회 고문(민간차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식직함인 조통위 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설전이 오간다고 한다. 북한은 제네바합의문과 콸라룸푸르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한은 대화를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물론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과 관련, 남측기업들의 북한투자 설명회나 투자방문에는 적극성을 띠고 있다. 혹자는 이를 두고 북한이 정·경분리 원칙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남북대화 재개의 전망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 당간부들의 발언과 노동신문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남쪽과 대화를 해야 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남북관계의 급진전이라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올해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두가지만 지적하겠다.

하나는 공로명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해 북한을 자극했다는 점, 또 하나는 한국정부,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입장이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는 북한의 내부사정과도 관계가 있다. 올해안에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김정일의 국가주석과 당총비서의 공식취임을 위한 북한의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공식취임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나 당중앙위 전원회의 소집공고도 없고 더군다나 당대회 소집공고도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남북정상회담 일정은 한국정부가 입장을 바꾸든지, 김정일이 유훈통치를 끝내고 공식적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정해질 것이다. 남북정상들이 판문점을 경유해 서울과 평양을 오가기는 아직도 넘어야할 험난한 산이 많다.

왜 남북관계 안풀리나?

지난 94년 온 국민의 기대속에 추진되던 남북정상회담이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무산되고 남한내에서는 조문파동을 시작으로 공안정국의 한파가 휩쓸고 간 이후 지금까지도 남북관계는 썰렁하기만 하다. 작년 10월 북미 3단계회담이 성사되고 올 상반기 경수로회담을 거쳐 북미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남북관계는 우리 국민들을 불안케 하기만 한다. 더욱 더 불안한 것은 지금의 시점이 냉전의 붕괴 이후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한 과도기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즉 분단된 상태로 과도기를 넘어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게 되면 분단은 고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왜 안풀리는 것일까?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겠지만 간단하게 현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에 나오지 않을까?

왜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고집스러우리만치 거부하고 있는지 북한의 대화 선결조건과 이에 대한 남한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은 첫째, 작년 조문파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작년 김일성주석이 사망했을때 전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 클린턴 미대통령도 애도를 표시했다. 오직 남한만이 조문과 애도표시는 커녕 김일성을 분단의 주동자, 한국전쟁의 주동자라고 몰아부쳤다. 당시 남한에서는 "죽을때에도 반민족적으로 죽는구만"이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였다. 죽을 때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일보직전 죽어가지고 잿밥을 뿌렸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조문을 하기 위한 재야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전남대에서는 분향소를 만들어 조문을 하고 있다는 조작사건을 터뜨리는 등 민간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계기로 이용하기도 했다.

둘째,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라는 것이다. 통일을 하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면서 보여야 하는 성의는 바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간통일운동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남한정부의 태도를 보자. 지난 5월 16일 정부는 남북경제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발표했다. 망국적인 5·16조치라고도 불리우는 이 발표의 본질은 다름아닌 민간인들의 자주교류의 완전 봉쇄였다. 또한 당시 발표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또 다른 국가보안법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그렇다고 북한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이라 해서 대대적인 통일행사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그 뒷편에서는 통일을 부르짖는 민간통일세력을 무참히 폭력으로 탄압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남한 정부의 태도를 보며 북한이 남한을 믿고 대화에 응할리 만무하다.

이익 앞세운 남과 북의 동상이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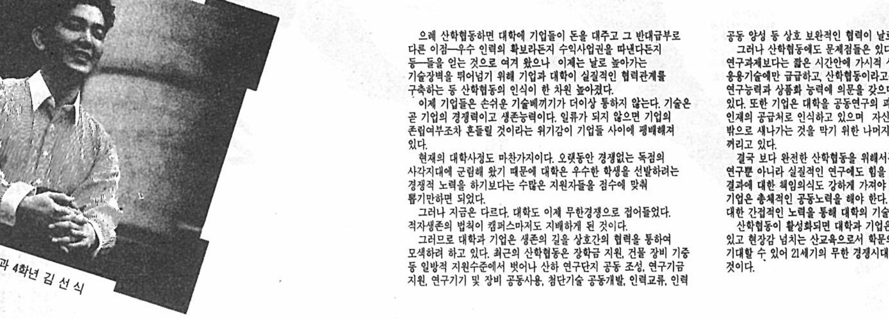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눈을 돌려 국외적 남한정부의 태도를 살펴보자. 북한이 경제상황이 과히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핵개발을 안할테니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경수로 건설에 도움을 주고 당분간 석유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북미 3단계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한 것이다. 이에 남한은 북한을 돕기 위해 경수로 비용의 50%를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신 경수로는 꼭 한국형 경수로여야 하고 한국이 중심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잘 되가고 있는 북미간의 경수로 회담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세가지 정도로 살펴봤는데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만 욕할게 못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얼마전 베이징에서는 제3차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열렸는데 "우성호 선원을 먼저 돌려달라. 쌀지원 문제인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남한에서만 쌀을 보내주는 등 선처를 베풀어 대화를 터보자"는 입장과 "왜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쌀을 보내주냐"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우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남한에서조차도 별 도움이 안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 모든 사업들을 열린 마음으로 진행하면 대화는 금방 이뤄질텐데 말이다.

박현숙 기자

21세기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토론마당'
한라공조가 마련한 '토론마당'에 의견을 성심껏 개진해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라공조는 우수원고응모작을 중심으로 이 '토론마당'을 통해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토론과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고를 응모해 주신 분들과 지난 5월 17일 롯데호텔에서 토론마당 초청 대학생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시상식에 이은 만찬 내내 활발하게 토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학과 기업의 직접적 교감을 갖는 유익한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패기있고 창조적인 젊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신선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HCC 한라공조주식회사
한라공조는 국내 최대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기계와 미국 FORD자동차회의 합작회사로서, 1986년 설립이래 자동차용 에어컨, 라디에타 및 컴프레서 등 공조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10대 공조회사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4학년 김 선 식

대학과 기업, 그 바람직한 산학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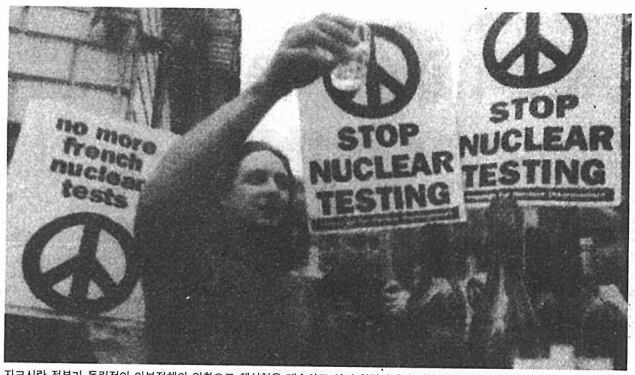
으레 산학협동하면 대학에 기업들이 돈을 대주고 그 반대급부로 다른 이점—우수 인력의 확보라든지 수익사업권을 따낸다든지 등—들을 얻는 것으로 여겨 왔으나 이제는 날로 높아가는 기술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산학협동의 인식이 한 차원 높아졌다.
이제 기업들은 손쉬운 기술베끼기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술은 곧 기업의 경쟁력이고 생존능력이다. 일류가 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여부조차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기업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다.
현재의 대학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경쟁없는 독점의 사각지대에 군림해 왔기 때문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는 경쟁적 노력을 하기보다는 수많은 지원자들을 점수에 맞춰 뽑기만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대학도 이제 무한경쟁으로 접어들었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캠퍼스마저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과 기업은 생존의 길을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모색하려 하고 있다. 최근의 산학협동은 장학금 지원, 건물 장비 기증 등 일방적 지원수준에서 벗어나 산하 연구단지 공동 조성, 연구기금 지원, 연구기기 및 장비 공동사용, 첨단기술 공동개발, 인력교류, 인력공동 양성 등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산학협동에도 문제점들은 있다. 기업들은 보다 장기적인 연구과제보다는 짧은 시간안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응용기술에만 급급하고, 산학협동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학의 연구능력과 상품화 능력에 의문을 갖으며, 대학연구소를 불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대학을 공동연구의 파트너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인재의 공급처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나머지, 대학과의 공동연구와 개발을 꺼리고 있다.
결국 보다 완전한 산학협동을 위해서는 대학은 순수 이론적인 연구뿐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에도 힘을 쏟아야 하고, 산학협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도 강하게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은 총체적인 공동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산학협동에 대한 간접적인 노력을 통해 대학의 기술연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산학협동이 활성화되면 대학과 기업은 연구의 기능을 더욱 넓힐 수 있고 현장감 넘치는 산교육으로서 학문의 발달과 기술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 21세기의 무한 경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한라그룹 한라중공업 · 만도기계 · 한라건설 · 한라시멘트 · 한라공조 · 한라자원 · 한라해운 · 한라콘크리트 · 한라창업투자 · 캄코 · 마이스터 · 한라 마이티 정보통신 · 한라제지 · 학교법인 배달학원

□ 해외통신 : 핵실험을 계기로 본 프랑스 독자방위노선

위대성 회복 위한 독립적 안보전략

나토 탈퇴하면서까지 핵개발 강행



자크시락 정부가 독립적인 안보정책의 일환으로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비난을 사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태도는 프랑스를 제3의 강대국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독자방위노선 재강화 움직임

프랑스는 지난 9월 5일 남태평양의 프랑스령 무루아 환초에서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전세계 환경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국가 이익'과 '독립'을 내세워 프랑스 핵억지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를 위해 1996년 가을로 예정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체결 이전인 금년 9월부터 1996년 5월말까지 7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프랑스의 핵실험은 프랑스의 독자적 방위노선의 일 표현으로서, 프랑스는 지난 5월 7일 대통령선거에서 신드골주의자인 자크 시라크(Jacques Chirac)를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독자방위노선의 근간을 마련한 드골의 전통적 독자방위노선을 재강화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프랑스 외교정책의 독자방위노선

제2차세계대전 직후 파랑스는 양극적 국제질서하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초국가적인 기구에 통합됨으로써 프랑스의 안보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은 프랑스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가적 위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프랑스는 국제적 위신을 높이기 위해 위대성(Grandeur) 재건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적 독립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드골 대통령은 냉전체제의 국제질서 하에서 4공화국 당시(1945-1958) 상대적으로 희생되었던 프랑스의 위대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 5공화국(1958-) 설립과 함께 다시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를 미·소 양국으로부터 독립된 제 3의 강대세력으로 부상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드골대통령은 프랑스를 제3의 강대세력의 지위로 올려놓기 위해 1)핵무기 개발 및 NATO통합군사기구로부터의 탈퇴 등 독자적 안보정책 수립을 통한 국가독립성 회복, 2)독일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유럽통합 정책, 3)제3세계주의 명분하에 독자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데아프리카 정책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프랑스의 독립성 확보정책의 근간 : 핵억지력 보유 및 NATO 통합기구 탈퇴

1953년 소련이 첫번째 수소폭탄을 개발하고 1957년 10월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본토에 대한 핵공격을 직접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의 대유럽안전보장을 위한 대소핵 억지력 사용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은 미국본토에 대한 소련의 핵보복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럽국가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유럽안보에 대한 보장을 절대가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미국은 염미간에 미국핵탄두의 공동사용을 규정한 나쏘(Nassau)조약(1962. 12. 21)에서 영국에게 부여한 특권을 프랑스에게는 거부하였다.

따라서 드골은 프랑스가 진정한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가방위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고 핵억지력 보유에 의한 프랑스 영토의 성역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960년 2월13일 사하라 사막에서 핵무기 실험에 성공하였고 1961년 4월까지 4차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1960년에 핵기동군을 창설하였다. 또한 미국도 프랑스 핵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방위핵전략(defense de tous azimuts)을 채택하기까지 하였고, 상대적으로 소량의 핵억지력으로 미·러의 핵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대도시나 공업지역 공격을 통해 민간 피해를 극대화함으로써 핵억지 효과를 확보한다"는 도시파괴전략을 핵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기구로부터 탈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정치적 회원국으로서 남아있지만, 동맹국들과 군사적인 문제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이상의 다른 군사적 임무에 참여할 의무는 지지않게 되었다. 드골대통령의 이와 같은 강대국정책은 후임 대통령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야당시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에 의해서도 지속되었다.

프랑스의 독립성 확보정책의 한계 : 미국과의 전략적 협조관계 유지

그러나 프랑스는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드골주의 시각으로부터 독립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프랑스의 이익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익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인식하에 미국의 세계전략 및 유럽안보정책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냉전시기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에 협조하였으며, 냉전 이후에는 걸프전에 공동으로 참전함으로써 미·영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중심국가에 재접근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냉전 이후 국경 너머에 거대세력화된 독일과 인접하게 되어 항시 잠재적인 위협세력으로 통일독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이 유럽안보를 위해 독일의 경제적 공헌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국제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는 독립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전 동 진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법대 맑스철학회 '광장' 심포지움 -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그리고...

노동자·학생 함께 할 미래의 상, 민주노총

1천만 노동자의 오랜 소망이었던 민주노총이 이제 그 출발을 50일 남짓 남겨두고 있다.

산별노조의 단계적 결성과 사회대개혁 투쟁 추진, 이 두가지를 축으로 논의돼 온 민주노총 건설은 단지 일하는 노동자들의 짓만은 아니다.

법대 맑스철학회 '광장'은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그리고...'라는 주제로 지난 25일(월) 제 2회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민주노총 건설 논의에서 제기됐던 문제들과 민주노총의 역할과 방향이 주로 다뤄졌다.

1장에서는 '민주노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하에 한국 경제구조의 비틀어진 성장의 역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의 역사가 소개됐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외국자본의 유입과 국내의 저임금체제를 기반으로 급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자유없는 번영'이라는 말이 대변해주듯 이러한 성장은 급격한 도시화와 정경유착, 소수 재벌에의 권력집중을 낳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은 지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됐으며 이 결과 2천여 사업장에 개별노조가 생겼다. 그 후 개별노조간 연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0년 제조업분야 노조들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같은 해 5월 사무직 업종으로 구성된 업종노동조합회의가 꾸려졌다. 민주노총의 토대가 되어온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이들 전노협, 업종회의, 그리고 그룹단위조직인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과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93년 6월 결성된다.

민주노총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활성화된 노조운동이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그리고 그 골간체계는 기존 기업별 위주가 아닌 산업별 체제가 될 것이다. 80년대 이후 노조운동의 주류를 이뤄왔던 기업별 노조는 기업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교섭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용이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산업별노조는 전국적인 단일노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정부나 총자본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제도개혁에까지 힘을 쏟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별체제로의 전환은 전교조, 공노대 등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속노련도 곧 출범할 전망이다.

2장 '민주노총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건설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주노총의 임무를 다루고 있다.

민주노총의 임무로는 △노동조합조직력의 강화, △노동기본권의 확립과 통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노동조건의 개선과 경영참가 확대, △사회부장제도 확충과 교육, 의료, 개혁 등 국민생활 옹호, △경제의 민주화, △조국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의 실현, △제민주세력과 국제노동운동과의 연대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민주노총이 벌이고 있는 사회대개혁 투쟁의 내용을 담고 있는 4, 5, 6번째 항목이다. 4항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선전활동과 대정부 차원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5항 경제민주화란 재벌해체와 중소기업 보호, 시장개방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세제개혁을 말한다. 특히 세제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방위비 삭감을 통해 사회복지비를 확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6항은 민족경제 수립을 통한 자주화와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각종 법안의 개정을 통해 사회전반에 노동자의 발언권을 높이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광장'은 이번 심포지움의 결론을 통해 "거대한 자본의 하청계열화 되가고 있는 현 대학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대학인은 부속품이 돼가고 있다"며 "사회속에서의 노동자의 역할을 직시하고 그들과 단결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상"이라고 밝혔다.

박병수 기자

학술단신

이태리어과 학술제 개최

지역학 · 지자제 다룰 예정

이태리어과 학생회의 제1회 학술제가 오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개최된다. '전공의 실천적 · 정치적 이해'라는 주제의 이번 학술제는 주제발표회와 심포지움, 시사 공개토론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원어연극을 통해 전공학과의 특성을 살려왔다는 이태리어과 학생회장 서영경(서양 · 이태리어 4)군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보여주기식의 행사보다는 준비과정에서 민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말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4-지역학 바로세우기
대학원 210호, 5시

△10/5-연방주의의 비판적 이해
대학원 104호, 5시

△10/6-한국적 민주주의와 지자제
대학원 104호, 5시

참여연대 시민포럼 개최

해외진출 기업의 인권문제 다뤄

참여연대 인권센터는 오는 12일(목) 7시 한글회관 1층에서 '해외진출기업과 노동자인권'이라는 주제로 제 1차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근로자파견법 제정과 맞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정상태(고려기업이사)씨와 민주노총준비위원(미정)이 토론자로 참여 근로자파견법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민만식 교수 발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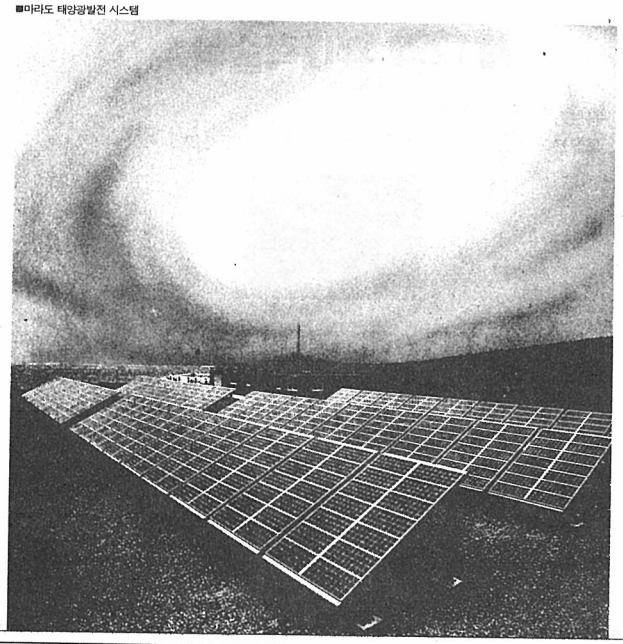
정치학의 발전 소개

'민만식교수 정년 기념발표회'가 오는 4일(수) 4시 대학원 104호에서 개최된다.

본교 정외과교수로 재직 중인 민교수는 이번 발표회를 통해 자신이 지난 30년간 재직해온 외대와 정외과에 대해 회고할 예정이며 외대와 정치학이라는 소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교수는 외대 정외과 출신으로 현재 정외과에서 중남미 정치학 · 미국정치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마리도 태양광발전 시스템



21세기 에너지-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우주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태양은 에너지 바로 그 자체입니다.
태양의 표면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는 약 3.8×10^{25}kW 정도이며
이 가운데 지구상에 도달되는 에너지는 연간 약 1.6×10^{14}kWh로서
이는 세계 1차 에너지소비량의 약 15,0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무한대로 존재하는 태양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까?

한국전력은 1961년 전력연구원을 설립하여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의 한 프로젝트가 '태양광발전' 에 대한 연구개발입니다.
태양광발전이란 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인
태양전지를 이용한 무연료 • 무공해의 직접발전방식으로
한국전력에서는 도서 지역과 산간벽지 주민을 위하여, 이미 1991년 최남단 마리도에 30kW,
1993년 충남 호도에 100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건설하여 운전 중에 있으며,
주택및 대규모 전력공급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실용화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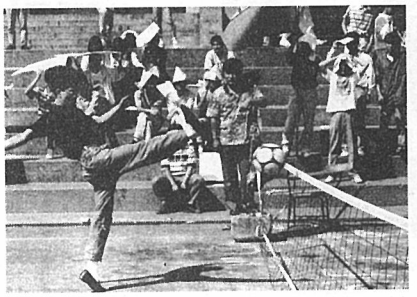
저희 전력연구원 태양광연구팀은 이 무한대의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품질좋은 무공해 에너지를 개발, 국민문화생활과 국가산업발전의 초석이 되고자
21세기 태양광발전 시스템 (SPS:Solar Power Satellite) 연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태양광 연구팀
책임연구원 : 엄 영 창
선임연구원 : 황 인 호
연 구 원 : 안 교 상

밝은 미래를 일어가는
한국전력공사

□ 복학생 끌어안기

노련미·참신성 어우러진 공간



90년 들어 군복을 벗고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은 변화된 정서와 후배들의 무관심, 미팅히 적을 두고 류일 수 있는 공간·기회의 부족으로 '적응' 이 어렵다고 한다.

군복을 벗고 학교로 돌아온 복학생들은 제일 먼저 군입대 전에 비해 엄청나게 뛰어오른 '등록금 액수'에서 변화된 현실과 맞닥뜨린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무섭게 개강을 맞아 대면하는 현역들과의 만남은 견뎌야 할 또 다른 강이다. 소위 현역들의 개인주의적인 태도와 복학생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강의 깊이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새롭게 대학생활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변화된 현실에 '적응' 해야 한다.

지난 26일(화) 학교 주변 술집에서 만난 한 복학생은 과방으로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후배들 눈치보이고 껄끄러워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예비역들끼리 어울리고 있다고 한다.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여서 수업만 같이 듣지 어색하기는 매 일반이라고.

이것이 일반적인 복학생들의 생활이다. 대다수가 도서관으로 직행해 취업준비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복학 후 과에 대한 애정을 실천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현만큼 적극적인 복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방법과 기회를 찾지 못해 마음으로 그치는 경우들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복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족구대회나 족구대회, 배구대회와 같은 운동경기이다. 사람 고갈로 버거워 하는 학생회에 복학생들은 특기 사항인 운동경기로 한몫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지고 서먹서먹했던 고학번 선배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을 하다 보니 '같은 과'라는 것으로 금새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지난 배구대회 장에서 만난 한 94학번의 말은 서로 접하는 공간의 빈곤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마련된다면 복학생도 현역도 서로의 괴리감과 차이가 크게 부각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빼고는 복학생들이 떡히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기회는 극히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5·18 문제와 관련해 80년대 학번의 집회 참가는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화염병을 만드는 것에서 부터 사수대까지 활발하게 참가하고 있다. 또 고려대의 경우 5·18 학살자 처벌과 관련해 한 예비역의 뜨거운 결의를 담은 '혈서'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게 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난 92년 외대발전투쟁 역시 교학 번들의 대자보를 통한 문제제기로 외대발전의 열기는 폭발했다. 이렇듯 복학생들의 참여에는 커다란 힘이 실려 있다. 많은 과회장들이 과학생회 사업에 복학생들이 조금만 참여를 하면 활기를 띄며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말한다.

복학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와 현역의 참신성을 조화시킬 때 과 학생회는 활기를 띤다. 이런 복학생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개별적으로 흩어진 힘을 류을 수 있는 단위로 다른 학교에서는 '예비역 협의회'나 '복학생 협의회'를 마련하고 있다. 제8기를 맞고 있는 세종대의 '예비역 협의회'는 90년도 학자투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고 이제는 과방가기, 과 일에 참여하기 등의 일과 함께 '체육대회',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어과 과회장 박선학(3, 89)군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기 보다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켜보는 피동적인 생각보다 함께 하는 대학인이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내킬 때 한번 참여하고 마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예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김군은 과회장을 하면서 동기들의 참여와 현역들과의 조화는 학번 차이를 뛰어 넘어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 뒤에서 믿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다고 한다.

편견보다는 열린 가슴, 열린 공간의 중요성은 다시한번 강조된다.

이옥선 기자

□ 용인캠퍼스 버스 무임승차, 그 현황

무임승차, 바늘방석

버스 117번이 처음으로 교내로 들어오면서 학교측과 운임회사는 '학교와 모현을 오갈 때는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약을 했다.

현재 용인캠퍼스에 들어오는 버스는 117번 외에 경남고속, 500번, 500-1번 그리고 9월 5일(월)자로 새로 신설된 1113번이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마음 편하게 모현을 그리고 모현에서 학교를 들어올 수 있는 버스는 과연 있을까.

박정희(인문·사학 3)양은 "승차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아저씨는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타려면 돈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승차장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기 보다는 내려가는 학생차나 당구장 차를 타는 경우가 더 많아요"라고 말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가자 지난 학기부터 총학생회에서는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차량의 번호와 시간을 적어 신고 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다고 한다.

이에 총무처에서는 "운임회사와 약속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승차거부를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나름대로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학생들의 태도에도 어느정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서울까지 가는 학생들이 다 탄 다음에 타야 되는데 먼저 올라타 모현까지 간다면 혼동이 생기게 된다. 간혹가다 모현까지 간다던 학생이 쑥 들어가 앉더니 서울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라며 한 운전기사가 승차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이유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의 비도덕적인 학생들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불편을 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측에서는 운임회사 측에 학생들이 약속에 맞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앞으로는 몰라서, 아니면 운전기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승차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들도 무임승차를 할 당시 서로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직접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는 열린 공간을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진정한 주인의 권리가 아닐까 한다.

문화부

□ 우리들의 호프- 당구장 아저씨

"오가기 먼 거리라 기꺼이 태웁니다"

'상업차량 통제'라는 교칙을 뚫고 달려오는 차가 있다. 항상 웃음으로 학생들을 태워주는 사람 바로 B·J당구장 구석기씨다. 이 차의 노선은 모현-교문-기숙사-학생회관-교양관-어문대-인문·사회대 순환.

취재를 위해 함께 봉고차를 타고 다니는 20분 동안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고, 걸어가다가도 멈춰서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는 학생들은 본교생의 절반이 넘을 정도였다. 이는 바로 그와 친절함을 말해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구장 차를 운행한지 1년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다.

"아저씨 태워주세요."

누가, 어디서 이 말만 하면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다. 만약 봉고차가 학생으로 가득 찼을 때는 "내 금방 갔다 올께" 그리고는 어김없이 다시 그 자리로 와서 학생들을 태워다 준다.

당구장에 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 그는 "당현히 당구장에 사람 끌려고 다니지만, 사실 당구장에 가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당구장에 가야 태워줄 수 없잖아요. 오가기 먼 거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라고 말한다.

몇달 전에는 어느 학생의 친구가 다쳤는데 근처에 병원이 없어 애를 먹길래 광주까지 태워준 경험도 있다고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막차가 끊겼을 때 집에 가야하는데 차가 없으니 길에서 잘 수도 없을 테고, 가지못해 쩔쩔매다가 결국에 당구장에 찾아와 광주까지 태워달라고 하는 학생들을 태워준 적도 많지요. 오죽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본교생들의 불편함을 그나마 그의 작은 봉고차가 풀어주고 있기에 오늘도 학생들은 그를 웃음으로 반기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당구장 차를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이러한 학생들의 심정은 다름 아닌 바로 용인캠퍼스의 열악한 교통사정이 낳은 결과이다. 하루빨리 아저씨가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도록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부

생활시평

불만과 비판

최근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는 학생식당 음식의 맛과 질을 학생들에게 평가받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학생들에게 듣기 위해 대자보를 식당에 부착해 해당사항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설치해 놨다.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협은 계속해서 학생들의 요구와 이해에 맞게 학내의 복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지난 1학기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식기와 식판을 교체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질책과 불만을 자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닫게 받아 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학기에 비해 기숙사나 어문관의 식당을 찾기 보다는 학생회관 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시선을 옮겨 학생들이 붙인 스티커를 보자. 처음 일주일 동안은 학생들이 붙인 스티커로 대자보가 가득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붙인 스티커의 1백%가 불만족에 오밀조밀 붙어 있었다. 과연 날마다 모든 음식이 그렇게도 짊이 안좋고 맛이 떨어졌는지, 오늘 먹은 음식을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획일적인 학생들의 반응은 너무도 뜻밖이었다.

진정한 비판이란 부정적인 현상을 폭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당면 현상이 무엇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가를 주관적 이상(理想) 및 관념이 아닌 그때그때 생활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또 사회의 여러 객관적 가능성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 부정적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 가는 것이 진정한 비판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적인 비판이 질책을 닫게 받겠다는 의미로 붙인 대자보에 난무할 때 지난 29일(금) 대자보에 붙여진 한 쪽지는 너무도 따뜻하다.

"수저가 식판 옆에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판을 들고 수저를 집으려니 불안하거든요."

이옥선 기자

명수당 (明水堂)

□ 베트남인의 의식과 언어

열대성 기후 영향 낙천적 성격

김 기 태
〈베트남어과 교수〉

오랜 기간동안 우리나라와 관계가 단절된 적이 있었던 동남아의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은 근래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의 투자협력 대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는 외부 세계와 폐쇄된 채 가난과 전쟁에 시달려 온 베트남 국민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몸부림과 우리의 축적된 부와 경험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 새로운 협력관계를 시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어 수많은 베트남어과 졸업생들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체의 베트남 현지에서 커다란 활약을 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하면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연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 당시와 비교하면 불과 15년만의 이러한 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베트남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어, 경제개발 경험 등을 배우기 위해 베트남인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베트남 연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얼핏 보기에 베트남인들은 인종의 생김새나 사고방식 등 의식 구조에서 우리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그리고 이곳의 우리나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베트남인들은 문화적으로는 중국문화권에 속하지만 인종, 언어,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에서 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북 베트남인들은 인종 구성이 다양하고 남·북 베트남인들 간의 사고 방식의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북베트남의 흥아강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비애트족의 문화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 영토의 변화로 인종과 문화면에서 다양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동남아 국가들은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고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구상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은 얼핏보아 동남아 다른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은 베트남인들이 단일 언어인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일찍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베트남인들은 열대성 기후의 영향으로 매우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자유로운 생활을 좋아하고 누구로부터 구속받는 통제된 생활을 싫어한다. 자존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윗사람으로 부터 오해를 사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조직체에서는 상하의 계급체계를 지키지만 일개인의 사생활로 돌아가면 주종의 관계에 대한 의식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언어 생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회사의 직업에 따른 호칭은 공식적인 경우에만 쓰일 뿐 상대방과의 친속도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통용된다.

따라서 베트남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칭호에 따라 두사람의 사이를 알 수 있은 척도가 되는 것이다.

- 알립니다 -

학보 수송시 필요한 학보띠를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위원회(학보위)에서 무료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화옹달샘

새 책

종군위안부의 탄생과 태평양 전쟁

올해로 종전 50주년을 맞았지만 종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극우적 자세와는 달리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수십년간 노력한 일본인이 있다. 바로 야마다 메이코씨이다.

그녀가 전쟁 중에 해군성에서 근무하면섬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당시의 종군 기자였던 사람들의 증언, 그들이 당시 썼던 기사, 미국측의 신문자료 등 사실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본인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다.

일본의 비도덕적 반인륜적 행각을 직접적으로 제시 해 종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석준 지음

기상경제, 기온 1도의 변화를 읽는다

기상컨설턴트 조석준이 쓴 기상경제 리포트, 기상 상황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기상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기상 관련 정보나 지식들은 국가나 기업의 경영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기상 정보는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재해 예방과 경제 운용, 군사, 작전 등에 기여하며, 기업 경영에서는 마케팅과 관련된 업무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운관/6,000원

최창귀 지음

상어와 함께 헤엄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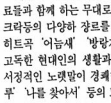
올해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최창귀 변호사가 법률 상식을 에세이 식으로 쉽게 푼 법률 풀이서.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이미 하이텔의 '법촌'에 올려져 예비 판검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던 것. '법에는 꿀도 있고, 독도 있다'는 저자의 희견대로 법을 제대로 알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역할을 한다.

안창오 지음

동지/6,500원

유머반세기

해방에서 배꼽티까지, 참세 시리즈에서 간 큰 남자 시리즈까지 우리가 걸어온 세월 속에 함께 호흡해 온 유머들을 한 자리에 모은 책. 시대상을 반영한 유머들은 진지하고 무거운 상황들을 지나치게 경박하게 표현하여 희화시켜 본다는 지적도 있지만, 웃음이야말로 고난의 역사를 해독시켜 준 묘약이었음을 부정하지 못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모든 유행어와 유머들을 발굴, 소개한다. 한뜻/5,500원



공연·콘서트

'95 장필순 가을 콘서트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해온 장필순이 이번 4집 앨범 출반을 계기로 2일(월)부터 16일(월)까지 마당세실극장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오랫동안 같이 활동해 온 음악동료들과 함께 하는 무대로 언플러그드와 재즈, 포크락등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게 된다. 자신의 히트곡 '어느새' '방랑자'와 바쁘게 살아가느고독한 현대인의 생활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서정적인 노랫말이 경쾌한 리듬과 어울리는 '하루' '나를 찾아서' 등의 노래가 선보인다.

여행스케치 콘서트 가을 영상콘서트

방송활동보다 소극장 무대를 통한 활발한 라이브 공연으로 음악실력을 인정받아 온 여행스케치가 오는 10일(화)부터 29일(일)까지 학전 BLUE에서 '가을 영상콘서트'를 한다.

이번 콘서트는 '별이 진다네' '운명' '산다는 건 그런게 아니겠니' 와 같은 기존의 가요와 여행스케치의 여행, 살아가는 이야기와 자연의 모습을 슬라이드와 비디오에 담은 영상 콘서트로 마

제12회 외대학술상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

모집분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3개부문(원고 80매 내외)

제12회 외대문학상

모집분야: 시(3편이상)
소설, 평론, 희곡, 번역(원고 70매 내외)

제출처: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마감일: 1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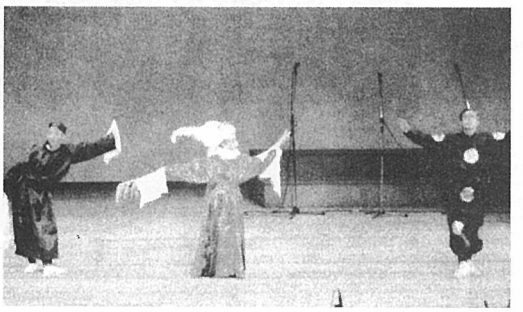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 '꿈의 복원' '95 세계민속예술제전

꿈의 복원 향한 당당한 외침

'95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제)이 오는 6일(금)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개최된다. 70·80년대 화려했던 세민제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이번 세민제는 과거의 화려함보다는 단절된 전통을 살려 단절 12년 만인 올해 다시 부활시킨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꿈의 복원'이라는 모토를 걸고 개최되는 이번 세민제는 배낭여행을 떠나는 4명의 여행자가 각각 두팀으로 갈려 세계의 민속춤과 노래를 만나는 것으로 진행된다. 1부 여는 마당은 총학생회장의 복원사와 함께 교가가 울려 퍼지고 개교 당시의 외대의 모습과 현재의 전경을 담은 영상이 결들여진다. 제2부 세민제의 과거 및 현재는 영상과 함께 각국의 민속춤과 원어노래가 등장한다. 한국의 외대에서 출발한 배낭여행은 우리 문화를 응축하고 있는 풍물의 힘찬 배웅을 받으며 세계여행을 떠난다. 서양으로 떠난 배낭여행객의 안내로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의 민속춤과 프랑스, 내덜란드, 스페인 등 서양 각국의 문화를 담은 노래를 접하게 된다. 또 중국, 터어키, 아랍,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동양의 각국으로 떠난 여행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참가자들도 함께 세계로의 여행을 떠난다. 동서양의 문화 탐방을 떠난 여행객들은 이랍에서 만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각 패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각국의 전경을 담은 영상도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4명의 배낭 여행객은 각국에서 만났던 춤패와 노래패들의 출발지였던 외대에 함께 등장한다.



지난 83년 제7회로 막을 내린 세민제가 올해 '꿈의 복원'을 모토로 부활한다. 과거의 화려함보다는 외대인이 하나될 수 있는 대동의 장으로 마련된다.

제3부 닫는 마당 '세민제의 복원과 미래를 위한 당당한 외침'은 각국의 민속춤과 노래를 부른 출연진이 등장해 세민제의 중요성과 미래의 희망을 담은 메세지를 전한다. 폭죽과 함께 2개월간의 준비과정을 담은 영상이 흐른다.

영상을 통한 과거 세민제의 소개와 이제 다시 부활하는 세민제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외대의 미래와 희망을 전 외대인이 함께 찾아나가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과 예술제를 통해 단편적으로 명맥을 잇고 있는 몇개 과를 제외하고 83년 이후 서양어대와 동양어대 대부분의 과가 맥이 끊긴 상태로 많은 과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있다. 올해는 그 첫 시도로 △복원과 새롭게 제기되는 의의에 대한 공유 △그간 예술제를 통해 축적된 공연물에 대한 중요성 재조명 △분산된 각국 문화에 대한 성과물을 모아내고 연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총학생회 기획국장 윤흥원(서양·서반아어 4)군은 "행사와 규모에 치우치지 않고 작더라로 외대인이 우리들민의 특성으로 하나될 수 있는 마당"이라며 "세민제가 지역학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적 부분을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있다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그 의의를 말한다.

한편 작계나마 이어진 공연내용에 대한 고증작업을 통해 춤과 노래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자료집으로 펴내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

이옥선 기자

문 화 단 신

이문

우리말 연구회 '우리말 풀이대회' 개최

게시판을 통해 '북한말 맞추기'로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말 연구회'가 오는 10월 9일(월) 붉은 광장에서 '한글날 맞이 우리말 풀이대회'를 가진다.

참가한 학생들 중에 우리말에 대한 OX문제로 4팀을 뽑는 예선을 치른다. 본선에 오른 4팀을 대상으로 단편소설 속의 우리말 맞추기, 북한말·순우리말 스피드퀴즈등을 거쳐 1·2·3등에게 상품을 준다. 또 참가한 팀은 팀 이름을 순수 우리말로 지어야 하며 이들 중 좋은 이름을 뽑아 수상한다.

회장 김종찬(동양·이란 2)군은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FBS 제17회 방송제 개최

제17회 FBS 방송제가 오는 5일(목) 대강당에서 열린다. '아! 大慨民國?!'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방송제는 우리나라의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크게 대구가스폭발 참사, 굴업도 핵폐기장, 대학문화, 동성애 문제에 있어 정부의 인권유린, 사회의 편견으로 비롯되는 인권문제에 접근할 예정이다.

문학비평모임 '미네르바' 첫 학술발표회

문화비평모임 '미네르바'가 오는 5일(목) 대학원 311호에서 첫 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지난 여름방학에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안목을 공부하기 위해 결성된 미네르바는 이번 학술발표회를 통해 '미셸 푸코의 삶과 철학 을 주제로 그의 생애와 철학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내용으로 진행한다. 그의 저서 '지식의 고고학', '감시와 처벌'을 통해 언표(enonce)와 권력 개념에 관한 부분이 주로 발표된다.

회장 오승선(서양·서어 3)군은 "외대의 빈약한 철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공부에 그치지 않고 학문적으로 완성해 보고자 했다"라고 모임의 취지를 설명했다.

왕산

불어과 '학술문화제' 개최

제 3회 불어과 학술문화제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이중인군(서학·불어 3)은 "프랑스의 혁명정신 자유, 평등, 박애를 주제로 불어과 학생 모두가 여름방학 부터 준비했습니다"며 의의를 밝혔다.

4일(수)은 '자유의 날'로 명수당 야외 무대에서 프랑스 문물저이 열리고 5일(목)은 '평등의 날'이라는 주제로 왼어 연극 '목걸이'와 '모파상'이 공연된다. 특히 이날은 프랑스의 사진작가가 찍은 1901년 서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전시한다. 6일(금)은 '박애의 날'로 영화 '사탄의 태양아래', '델라카트슨 사람들'과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시청각실에서 상연된다.

우리말 속 일본말

〈10〉 곤조

본디 일본말로서 좋지않은 성격이나 마음보, 본색, 근성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나쁜 근성, 특수한 직업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성질'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말로는 '근성'이나 '성깔'로 써야 한다.

예)뱃사람 특유의 '곤조' → 뱃사람 특유의 '근성'

— 고 침 —

지난 649호 ⑨'뺑뺑이 옷'의 일본어표기 'ㅋル'를 'てん'로 바로잡습니다.

□ '95동아리 문화한마당(가칭)

진정한 꾼들의 대동 한마당

'2천 5백인이 준비하고 6천인이 함께하는 동연제'

오늘부터 6일(금)까지 용인캠퍼스에서는 95 동아리 문화한마당(가칭)이 열린다.

이번 동연제는 동아리의 단합대회 형식에서 벗어나 동아리 각각의 전문성이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전 외대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성격이 비슷한 동아리들이 하나의 주제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려 분과차원으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일(수)에는 학생회관에 동아리연합회의 현판을 세우는 '현판식'과, 두 장승사이에 솟대를 세우는 '솟대제'와 함께 동연제의 개막식이 열린다. 5일(목)에는 정신대 문제를 다룬 '29대 1'이라는 시극이 사월 문학반의 낭송과 마스터피스, 비나리 의 배경음악으로 열리고, 무에로 '시범경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6일(금)폐막식에는 '잡은 손 굳게잡고'의 주제로 중앙 풍물패 한알 정기공연이 있다.

그 밖에 삼설거리로 민족무예 '활터'에서는 '5·18거리' 속에서 '학살자 처단'이라는 취지로 활쏘기를 하고 독도문제연구소는 독도사진전, 시간사냥에서는 지금까지 역사기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주제로 거의 전시회가 있다. 그리고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거리, 서우회에서는 가훈 써주기, 타임반에서는 커버전시 등 각각의 동아리들이 분과차원으로 다양하게 '동아리 전시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동연제를 준비한 동아리연합회(동연) 회장 송명준(서학·독어 4)군은 "아직까지도 동아리들이 동연제를 '동연'의 자체 행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가하는데 있어서도 자신이 주체라기보다는 공연을 해주고 전시회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하는게 안타깝습니다"라며 동연제를 준비하며 아쉬운 점을 토로한다.

문화부

□ 빛모습의 '5·18 다큐멘타리'

빛으로 재조명한 그늘진 역사

5·18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학내에서는 시위 뿐만이 아니라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영화 동아리 '빛모습'도 영화제를 통해 5·18를 말하고 있다.

5·18 다큐멘타리를 준비하고 있는 박정남(서학·항기리 3)군은 "제대하기 전에 5·18 관련 소식을 들으며 지금쯤 학내는 시끌벅쩍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2학기 복학을 했는데, 예상외로 5·18 에 대해 학생들의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라며 그는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었다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에 무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며 기획 동기를 말한다.

다큐멘타리는 '전두환 취임식' '청문회' ' 김영삼 취임식' '5·18 불기소 처분을 발표한 검찰 인터뷰' 등과 함께 '어머니의 노래' '5월 그날이 오면' '모래시계' 등 지금까지 광주 관련 필름을 모아 재편집한 것이다. 그 밖에도 빛모습은 본교에서 5·18 서명에 참가한 교수들과 지난 25일(월) 삭발한 6개 단대 장들의 인터뷰도 준비 중이다.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에 응해 주시길 요청하지만 응해 주시는 분이 아직까지 단 한 분도 없어요. 서명을 하셨던 교수님들이, 무엇을 결연쩍어 하는지 화면에 나오기 싫어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교수들을 섭외하는 부분이 제작 과정상의 가장 큰 과제라 한다.

오는 6일 동연제 폐막식에 상영되는 이번 다큐멘타리는 자료와 장비의 부족으로 미흡한 면은 있으나, 동아리 자체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앞으로 권장해야 할 부분이다.

김태형 기자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녹차향기 배어나는 따뜻한 만남

바쁜 생활 속에 잠시 여유를 찾아보고 싶을 때나, 오래된 친구와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으레 찾는 곳이 있다. 일단 지하철 종각에서 내려 파고다공원 모퉁이를 돌면 인사동에 도착한다. 이곳 사거리에 위치한 '나누는 기쁨'이라는 전통찻집이 바로 그곳이다.

화랑가 한 중심, 3층에 위치한 이곳은 전망도 좋고, 녹차의 맛도 일품이며, 무엇보다 분위기가 녹차처럼 그윽하다. 실내장식은 아주 조촐하면서도 주인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있어 장식 하나하나가 모두 정감으로 가득차 있다. 한쪽 구석에 위치한 작은 방은 창문턱에 놓인 난분과 옛 장이 놓여있어 마치 사랑채에 든 듯한 느낌이 든다.

차는 그 잎을 손으로 딸 때부터 마시기 전까지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봄비가 내리기 전에 잎을 따고, 적당한 불에 넣어, 그것을 일일이 손으로 비비기를 아홉번 해야지만 차의 빛깔이 곱고 맛과 향이 좋다.

전통찻집 '나누는 기쁨'

백 경 운
〈자연대·제어계측공 1〉

그럼 이곳 차 중에 제일인 우전차를 한잔 시켜 보자. 차는 맛을 세 곳으로 본다고 한다. 눈으로 차의 색깔을, 코로 차의 향기를, 그리고 입으로 차의 맛을 음미하며 마셔야 한다. 마셔본 사람은 알겠지만 향기와 빛깔을 머금고 마셔야 제맛이 난다는 말을 실감할 것이다.

여럿이 함께 하는 자리라면 서로가 직접 따라주면서 정감을 나눌 수 있다. 만약 혼자라도 어색해 할 필요가 없다. 일상에서 오는 자신의 허한 마음은 이 곳에서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때문인지 혼자서 찾는 사람도 적잖이 볼 수 있다.

일상에 쫓겨 자주 만나지 못했던 옛친구와 함께 간다면, 녹차처럼 오래도록 배어나는 향기를 서로에게 심어 줄 것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중

닥터매직으로 가볍게 삽시다!

OXFORD+α

닥터매직은 체계적인 영어학습에 필요한 세계 최고의 OXFORD(OSD) 사전을 원전 그대로 수록한 제품으로서 영어사전을 비롯한 40여종에 이르는 전문 도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롬카드 하나로 척척 알아볼수 있게 해 줍니다. 또한 닥터매직은 국내 최초로 2개의 롬카드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고, 200 MB의 방대한 메모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등 기존의 단일 기능적 전자사전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개념의 전자도서 시스템입니다.

롬카드 교환형 전자도서사전

자랑하고 싶은 닥터매직의 장점 -

- 개 최고의 OXFORD 영어사전을 원전 그대로 수록
- 미아니 정통 영어의 발음 청취가 가능한 데모카드
- 문 서적을 대신할 40여종의 다양한 롬카드
- 국내 최초 두개의 롬카드 동시 사용이 가능
- 고 200MB까지 확장 가능한 방대한 메모리 용량
- 초 슬림형 포켓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휴대 편리
- 클릭트형의 감각적이고 세련된 디자인

The Best Price Best Quality

제 품 문 의
☎ (02)563-7200
교환번호 151~158

중앙통신전자(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8 (대원B/D 9,10F)
TEL (02)563-7200(대표) FAX (02)563-4554

15년만에 이룬 5월문제 전국화

교수·학생·시민단체 등 서명 70만명 달해

검찰의 '7·18 불기소 처분'은 이제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날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5·18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국민위원회)와 교수, 학생, 종교단체 등의 그간 활동을 정리했다. 편집자

70만명 특별법 청원위한 서명

지난 9월 3일 결성된 국민위원회는 자신들의 일부를 "현대사가 빚어낸 아픔인 5·18의 진상을 밝히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의와 도덕적 지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토) 제 1차 국민대회를 시작했으며 지난 30일(토)에는 제 5차 국민대회를 전국 15개 주요도시에서 치뤘다. 국민위원회 간사 유한범씨는 "5·18을 국민적 문제로 돌려놓았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9월 말에 황낙주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법청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2일(금) 28만명의 연서로 특별법안을 청원해놓은 국민위원회는 그간 진행해온 서명운동(현재 70여만명)을 오는 20일(토) 취합해서 국회가 끝나기전인 23일(월)경 다시 청원할 예정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월 4일(토) 제 6차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교수5천명 성명·항의방문

지난 7월 18일 검찰의 공소권포기 발표가 있은 지 보름만인 31일 고려대교수 1백31명의 '검찰수사와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발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는 5천명이 넘는 '자랑스런 스승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각 대학의 교수들은 산발적인 성명발표에 그치지 않고 지난 8월 24일(목) '5·18내란 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전국 서명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과 '헌법파괴적 범죄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하고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날인 25일(금)에는 교수대표단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검찰의 5.18 학살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국서명교수대표자모임'(교수모임)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교수는 "우리사회 지식인들 대표하는 교수로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과 책임감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했다"며 "계속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정권의 위기'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모임은 지난 9월 30일(토) 1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결의대회를 가졌으며 계속해서 지역순회 강연회나 언론의 광고를 통한 대규모 홍보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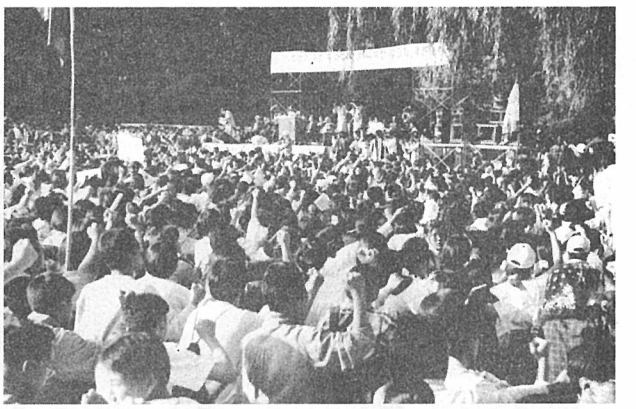
역사정립을 위한 교사선언

자신의 제자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섰다. 지난달 30일(수) 전남지역 4백7명의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22일(토) 23일(일)에는 광주지역 3천 1백 8명, 전북지역 8백24명, 충남지역 3백 84명의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8일(목)에는 서울지역 2백62개 초중고 교사 1천 7백15명이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교사선언'을 발표했다. 교사들은 선언문에서 "검찰과 문민정부 스스로 포기한 징의를 우리가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참배움과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을 조직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5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장관 앞으로 성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각계 시민단체 집단행동

북경여성대회를 마친 각 여성단체는 '여성2백인 선언'을 발표하고 언론노동조합연맹과 기자협회, PD연합회도 '광주학살 심판촉구 시민대토론회'를 공동개최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민변)는 전두환 전대통령 등 7명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검찰의 518불기소 처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교계의 경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성명을 발표한 후 각지역 성당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6만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조계종 스님과 집행간부 4백 71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기독교 장로회 역시 결의문을 채택한 후 특별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난 7월 광주지역 의원 1백여명은 15일간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국토순례를 다녀왔으며 민주당의 김영진의원은 국회기도실에서 약 보름간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의회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변 등은 정기국회 개원일인 지난 9월 11일(월)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에 앞서 6일(수)에는 각 단체들의 활동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연석회의를 구성했다.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잣대는 국회가 쥐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5·18공동기자단, 단장:배지운



5·18 책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 사회 각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현재 5·18특별법청원을 위한 서명이 70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 학생들은 동맹휴업을 하면서 5·18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30일 제5차 국민대회 장면.

□ 현장보도 : 광주에서 열린 영호남 청년학생대회

광주시민 안심케한 영호남 학생 한마당

80년 5월항쟁 당시 광주시민을 가장 불안케 했던 건 '고립' 이었다. 군부정권은 언론과 교통을 철저히 통제해 광주와 타지역을 분리시켜 서로간에 불신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민에게 '고립'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80년 오월을 겪은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다.

"광주만 떠들어서는 안돼. 전국민적으로 해야돼"

지난 23일(토) 24일(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영호남청년학생대회는 이런 광주시민들의 '불안'을 씻어주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학살자를 배출한 책임을 지고 학살자의 고향인 대경총련이 앞장서서 학살자를 처벌하겠습니다' '저희는 결코 현정부처럼 학살자를 비호하지 않습니다. 학살자는 저희 부경총련이 선봉에서 처벌하겠습니다'.

영호남 청년학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남대에 모인 4개 지역(남총련, 전북총련, 대경총련, 부경총련) 학생들이 가져온 플래카드에 씌여 있는 문구들이다.

문창인 전남대 부총학생회장은 "영호남 청년학생들이 함께 모여 투쟁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다. 청년의 양심으로 반드시 학살자를 처벌하자"며 대구 등 타지역 학생들에 대한 환영인사를 대신했다.

전남대에서 환영식을 마친 3천여명의 학생들은 도청앞에서 열린 '영호남 민중대회'에 참가했다. 집회를 보고 있던 김기선씨(56세)는 "대구에서 온 학생들을 보니 반갑구먼.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구.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인께로. 광주시민들도 힘내서 더 열심히 싸워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집회를 마친 후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민자당사로 향했다. 학생들은 '비폭력'을 외치면서 민자당사에 서한을 전달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들의 강경대응으로 무산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학생들이 머리가 깨지는 등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전남대에 돌아와 밤 10시경부터 청년학생한마당의 본 행사를 진행하였다.

격려사에서 김병규 목사(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는 "지금 정부에서는 5월정신을 희석시키기 위한 엄청난 술수와 간계로서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다. 비엔날레에 드는 재정은 1백80억, 그중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70억이다. 광주는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이다.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지금 광주가 잔치할 때입니까?"라며 광주비엔날레의 숨은 정치적 음모를 폭로했다.

또한 대회도중에는 얼마전에 출소한 2기 한총련의장 김현준(전 부산대 총학생회장)군과 3기 의장 정태흥(고려대 총학생회장)군이 나란히 나와 학생들의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현준군은 인삿말을 통해 "2기 한총련의 길은 정당했다. 영호남지역 학생들부터 단결하자"라며 한총련 강화를 당부했다. 정태흥군은 "히틀기 한총련은 5·18문제 해결과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해 백만 청년과 함께 투쟁해 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한총련의 활동방향에 대해 밝혔다.

다음날 24일(일)에 학생들은 망월동에 들러 민주열사들에게 참배를 한후 그곳에서 열리고 있는 안티비엔날레(통일미술제)를 관람하고 각 지역으로 내려갔다.

오월문제 해결과 영호남청년들의 단결을 약속하며 막을 내린 영호남청년학생대회는 "학살자를 비호하는 김영삼대통령을 학살자와 함께 단죄하겠다"는 학생들의 굳은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게 참가자들의 한목소리이다.

박현숙 기자

사회단신

국립대 노조 총파업 1백20일째

전국대학노동조합 산하 7개 국립대 노동조합(서울대, 경북대, 목포대, 군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이 현재 총파업 120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35일째 벌이고 있다.

이들 7개 국립대 노조는 '조합원 신분보장', '노동조합 활동보장', '생계비에 기초한 단일호봉제 마련'등 3대 목표에 따라 마련한 88개 조항의 단체협약요구안에 근거해 5월 8일 1차교섭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8일까지 21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해왔다.

이들은 6월 5일 전면파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총파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학당국은 지난 7월 31일 서울대, 전남대를 제외한 5개 대학 노동조합을 고소했다.

뿐만 아니라 7개 대학당국은 지난 7월 무노동 무임금 논리를 적용, 석달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폭언 및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조들의 거센 반발이 더욱 장기화 될 조짐이다.

국립대노조가 1백여일이 넘는 총파업을 하는 등의 무리수를 둔것에 대해 경북대 이정순 노조위원장은 "10년을 일해야 겨우 60-8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언제든지 직권면직이 가능한 현재의 기성회 직원규정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며 "상식이하의 행동으로 공공연히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마저 방해해 왔던 상황은 이번 투쟁을 불가피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은 대학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항의, 지난 5일(화) 전남대를 비롯해 지난 21일(목) 경북대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산와 은행 일본인 지점장, 여직원 폭행

산와은행 서울지점 여직원 폭행사태가 발생한지 64일째를 맞고,있는 지금 산와은행노동조합이 철야 농성에 들어간지 33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일본인 지점장 시게미쯔 기요무(52세)씨는 당시 여직원들만이 참석하고 있던 노조 간부회의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들어와 폭언을 퍼붓고 피해자 정모씨(41세)에게 "남편이 얼마나 못났길래 여자가 밖에서 일하나?"는 등의 모욕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또한 시게미쯔씨는 정씨를 따라다니며 목과 팔을 끌어당기고 여자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갔으며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로 가던 정씨의 허리를 끌어당겨 정씨는 심한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정씨 등 노동조합원들은 이러한 지점장의 처사에 대해 나이들은 여직원을 해직시키기 위한 모략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성차별, 성희롱, 부당대우, 노동기본권 침해, 민족차별 등의 일본인들의 부당행위들을 이번을 계기로 모두 폭로하고 선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산와은행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에 위임하고 은행측에 은행장, 지점장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8월 1일부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농민 중 70%가 질병에 시달려

농민들의 70%가 요통, 관절염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업진흥청이 27일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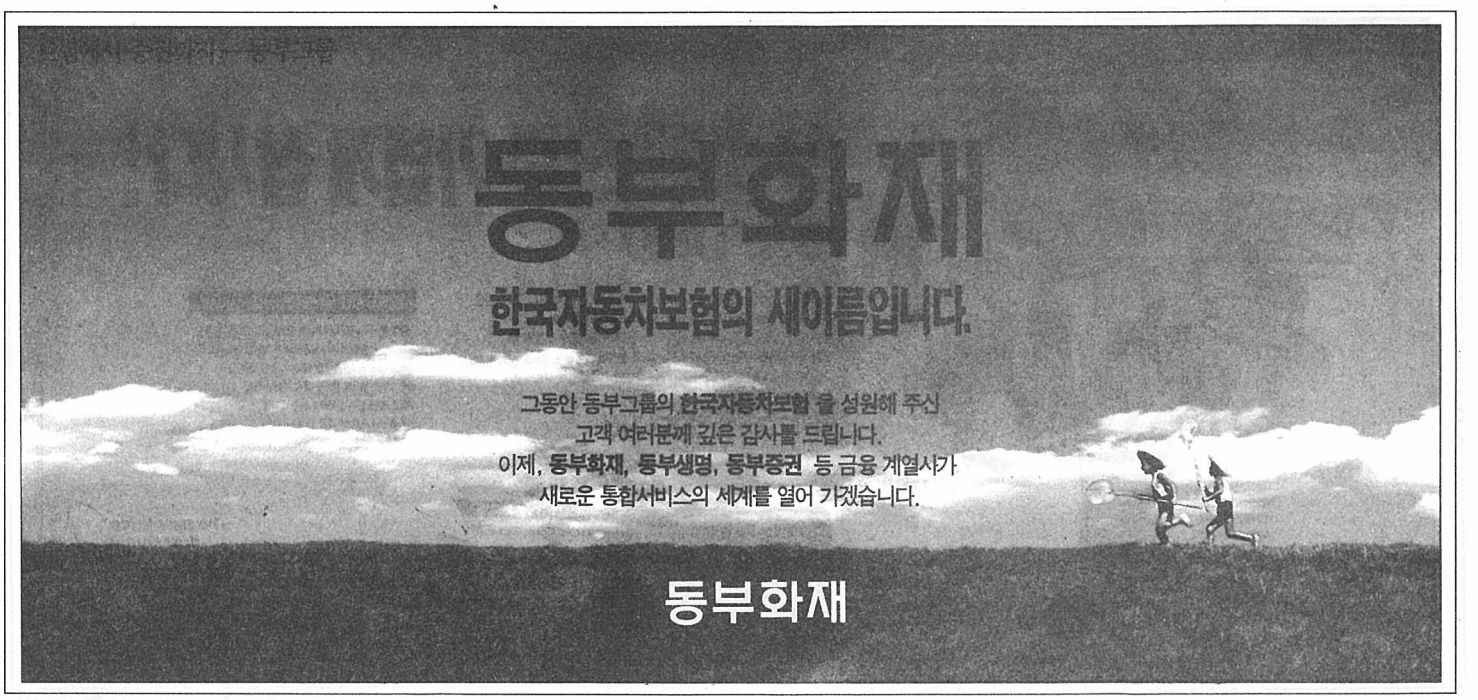
농업진흥청은 5개 영농 유형별로 2백 농가씩 모두 1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농민의 69.2%가 어깨결림, 요통 등의 농부증을 앓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또한 농진청은 농민들이 주로 요통, 어깨결림, 손발저림, 관절염 등의 질병을 겪고 있으며 30%정도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대 사태 흔미, 교협 앞장서 총장에 '반기'

시립인천대의 학내분규가 인천전문대와의 통폐합계획 폐지발표 이후에도 그칠 줄'모르고 있다.

인천대는 지난 8월 24일(목) 인천시가 인천전문대와 인천대를 통합하겠다고 발표해 학생, 교수들이 크게 반발, 진통을 겪어 왔다. 발표 이후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 농성, 학생 동문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9월 12일(화) 인천대 황규복 총장은 통폐합계획을 백지화하였다.

그러나 인천대 교수들이 '총장퇴진' '대학자율성 침해'에 대한 인천시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천대 교수협의회는 현 총장이 "사전에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은 밀실에서의 통합논의로 학내를 혼란시켰으며 대학의 시립화 이후 무능과 파행 등 비상식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총장의 퇴진과 새총장 선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통폐합논의는 각 대학에서 먼저 건의한 것"이라며 대학을 거부해 사태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 아시아 사회과학 연구원 시민포럼-한국정치가 나아갈 길

3김이후 정치 질서 준비해야

토 론 자

이부영(민주당의원)
조순환(자민련의원)
노승우(민자당의원)
임채정(새정치국민회의의원)

6·27지자제 선거는 민자당의 참패로 끝났다. 현 정부의 평가 또한 선거가 말해주듯 냉혹하기 짝이 없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의 정계복귀와 신당창당, 김종필의 민자당 탈퇴와 자민련 창당, 시민운동 세력들의 정치세력화 움직임 등으로 야권은 분열되었고 지금의 정치판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또한 김영삼정부의 개혁 포기와 자민련의 극우보수 표명, 새정치국민회의의 온건보수회 정강으로 추론되는 현 정치권의 보수회귀 경쟁은 국민들의 요구와는 무관한 자신들의 정권 획득을 위한 경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한국정치의 객관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본교 이장희교수)이 주관한 '한국정치의 나아갈 길'이라는 시민포럼이 열렸다. 주제 발표자로 이부영 의원(민주당), 조순환 의원(자민련), 노승우 의원(민자당), 임채정의원(새정치국민회의)이 참석했다.

편집자

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은 한국정치의 객관적인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정치의 나아갈 길'이란 시민포럼을 9월 26일 열었다.

-3김시대 청산·세대교체론에 대해

이부영=3김정치는 조정과 통합이 아닌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지난 냉전시대의 상징물이다. 3김시대 청산은 시대적 사명이며 3김시대가 청산돼야 지연, 학연을 벗어나 노선과 정책을 우선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문화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3김시대를 청산하고 정치질서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돼야 하며 민주당도 환골탈퇴하여 이 세력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조순환=그렇다. 3김 시대는 청산돼야 한다. 그러나 인위적인 정치적 거세가 아닌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에 교체이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권력 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승우=세대교체는 과거 30년간 권위주의적 지배를 해왔던 정치 지도자의 자기쇄신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늙고 할만큼 한 사람들은 집에가서 손자나 보고 후배들한테 길을 터 줘야 한다.

임채정=세대교체와 3김청산이라는 말에 대해 동감하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3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없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의 3김청산 논의는 김대중 총재를 노린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3김청산에 대한 부분은 선거에 의한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할거주의에 대해

이부영=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은 또 다시 지역감정에 호소하며 대현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결국은 3김구도가 지역할거구도를 심화시키는 장본인이며 이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한 지역할거주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순환=정치권의 지역할거주의는 특정 정치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3김씨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책임이다.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위해서 내각제 개헌과 국회의원선거제도 개정도 고려할 만하다.

노승우=우리의 지역문제는 지역에 기반한 정치구조를 풀어내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의정치기구로서 우리의 의회제도가 안고 있는 지역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양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수지역에서 인구비례를 상회하는 수준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임채정=지역갈등은 애초에 지역소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바야흐로 지역패권의 시대에서 지역등권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지도자를 직접 뽑고 어느 지역이든 자기 지역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등권은 지역 갈등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부

□ 제 3기 한총련 제 2차 중앙위원회-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계획

통일운동으로 반정부 정서 확산 성공

하반기사업, 5·18·국보법·민주노총 건설에 집중

지난 9월 25·26일 충남대학교에서는 제 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제 2차 중앙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상반기 사업들을 평가하고 5·18, 민주노총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상반기 한총련은 현 정부가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성격의 정부라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현 국내외적 정세와 국민들의 주체적 힘을 바탕으로 대중적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기조와 그에 부합하는 5대 과제·10대 목표를 설정했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조와 설정과제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개개 사업들이 만족할 만큼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통일선언운동, 5월초 한총련 출범식, 6·3청년학생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운동이 올해에는 각 시기마다 유동성있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러가지 각도에서 노력한 흔적도 성공을 입증한 단면이다.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상반기 사업에 적지 않은 한계점도 드러났다. 간부들이 일상사업을 하는데 있어 나타나 관성적인 모습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장애로 되기도 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16조치와 5월말 한통노조 파업, 6·3대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총련의 대응이 무력했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8·15민족공동행사 평가에서는 행사진행 과정에서 간부들이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운위는 "이번 8·15행사는 민족공동의 합의와 공동실천이 모색하고, 민주노총·민예총 등 1백4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등 통일운동의 일상화와 대중화의 진전을 등 통일운동에 획기적인 발전이었다"고 평가했다.

6·27지자체 선거에서도 드러났지만 올 상반기 한총련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반민족적·반민중적 성격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한총련은 현재 국민들의 반정부 정서가 5·18학살자 처벌과 국가보안법 철폐, 민주노총 건설의 요구로 모아지고 있다고 판단, 이후 사업의 중심을 여기에 모으기로 했다.

5·18투쟁은 이후 제 3기 전·노 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특별법 제정과 국민적 요구가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또 통일운동의 경우 상반기 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통일방안 합의·확산운동 등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하반기에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10월 3일(화) 자주교류사업으로 모으기로 했다.

한총련은 특히 민주노총 건설을 하반기 중심사업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출범하게 될 11월 노동자대회 때까지 다각적인 노동자·학생 연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총련 중앙위원회는 상반기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 평가하고 향후 한총련으로의 통큰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이 힘차게 결의했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자리였다.

고병권 기자

한총련 하반기 사업계획

1)5·18학살자 처벌투쟁

특별법, 특검제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제 3기 전,노 체포결사대 조직

9월 29일 동맹휴업및 9월30일 국민대회

11월 3일 학생의 날·기념식및 5월 학살자 처벌을 위한 백만학도 결의대회

2)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10·3투쟁

국가보안법 피해자 조직과 국회의사당 항의방문

법대 학생회, 교수중심으로 법적 부당성 선언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2만인 대합창

개천절인 10월 3일을 중심으로 단군릉 답사투쟁 전개

3)노학연대사업과 민주노총건설투쟁

영화 전태일 보기운동과 민주노총뱃지 달기 운동

민주노총 후원단 건설

노동악법 철폐투쟁과 근로자 파견법 도입저지투쟁

일상적으로 후원주점, 민중연대한마당 등 다양한 사업진행

충격적인 사실은 5·18관련 과거 그의 발언이 현재 각계각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별 다를바 없다는 사실이다.

□ 5·18관련 YS발언 모음

화려한 말잔치

민주당시절 특검제 주장하기도

92년 충남 제천에서 유세 때 "절대로 쌀수입만큼은 하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했다는 사실을 애로 들면서 강준만교수는 '김대중죽이기'란 책에서 가장 식언을 많이 한 정치인을 YS라고 얘기하고 있다. 굳이 강준만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은 너무도 쉽게 접해왔다.

그럼 현재 전국민적 문제로 확산돼가고 있는 5·18문제에 대해 YS는 과거 어떠한 발언을 해왔을 까?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민자당의 당론이나 5·18집회에 대한 가혹한 탄압 등을 통해 보여지는 현 그의 생각은 한마디로 "역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과연 그가 과거에도 5·18문제를 역사에 맡길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었을까? 물론 아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과거 발언이 지금 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장과 별 다를바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전씨 같은 사람이 이 나라에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진상규명을 해야된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놓고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 또 누가 보든지 5공 비리와 광주문제에 핵심적으로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것 안되고는 절대 '안정'이 될 수 없다."

- 민주당 총재시절, 중앙일보(89. 3. 13)

"5공청산은 광주문제, 5공비리등 5공 정권이 공권력의 남용, 부정행사로 양산한 온갖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의미하며 이는 대통령의 기본적 직무다… - 현 정권이 만약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5공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 제 65조에 의거, 대통령 직무수행상의 모든 법률위반을 들어 탄핵소추발의를 준비할 것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부산 기자회견(89. 9. 3)

그의 과거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89년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5공 문제를 검찰에게 믿고 맡길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했었다.

"정부는 특별검사제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제까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도저히 검찰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 - 5공 청산을 위해서는 특별검사제가 도입돼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헤결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 민주당 총재시절, 일요신문 신년인터뷰(89. 1. 1)

5·18과 관련된 김영삼대통령의 발언만을 살펴보아도 그가 상황에 따라 얼마나 말을 달리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YS 자신이 외쳤던 주장들을 자신 스스로 짓밟고 있다는 사실은 과거 그의 발언들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 이용됐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문민정부임을 포기했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역사에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줄수 없는 과거 그의 발언들이, 그가 좋아하는 훗날 역사에서 어떻게 심판될지 자못 궁금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광주에 와서 맨 먼저 저 망월동에 누워 있는 우리의 아들딸과 형제자매의 고귀한 민주주의 정신에 고개를 숙입니다."

- 92년 대통령후보로 유세차 광주에서(92. 12. 3)

"80년 5월 광주의 유월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됐으며,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민주정부다."

- 5·18관련 대통령특별담화(83. 5. 13)

박현숙 기자

NEW KOLON 2000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
코오롱의 미래를 펼쳐나갈
주역을 찾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여 섬유보국의 기치를 드높이며 출발한 코오롱 — 이제 코오롱은 첨단 섬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유통,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한국을 이끌어 갈 뉴리더로서의 웅지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지만큼 다가와 있는 경제한국의 주역 — 코오롱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미래를 드립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보람의 일터 —— 코오롱

외 대 와 나

아직도 대학당국은 명분만을 위해 패배자로 전락하려는가

엄 재 천

〈제 3대 노조조합장〉

90년 당시 직원노동조합장으로서 우연히 외대학보 제649호에 게재된 대학보도 3면 "결혼이 해고의 사유라니…"를 읽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무보조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몇자 적어 볼까한다. 대학당국자들도 참고하기 바란다.

그동안 구두상으로 일부 조합원들과 대학의 행정가들을 통해 용인캠퍼스 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해고 문제가 거론됐다는 소문을 접했으나 당연 구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관심조차 없었으나 외대학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볼 때 상황의 심각함과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김은주양에게 먼저 경의와 찬사를 보내며 대학당국에게 경악을 금치 못함을 밝히는 바이다.

당시 용인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 상근사환들은 사무 여직원으로 직급전환을 약속받고(용인캠퍼스의 근무상황이 열악하여 저임금에 해당하는 상근사환을 채용하여 사무 여직원의 업무를 전담하게 함) 근무하던 중, 극히 일부 상근사환에 대한 직급전환만 단행된 채 직급전환된 직원 및 신입 고졸 여직원(상근사환보다 3-4년 나이 차이가 있으며 업무는 동일함)과 상근사환들 간에 호칭문제로 인한 심각한 업무 불편사항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었다. 이에 조합은 대학당국자들의 인사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단체협약 제20조(직제개편) 제1항 상근사환의 호칭변경"을 하여 직원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인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당시 이 협약안의 내용은 상근사환급 조합원들의 직급별 분임토의를 통한 수차례의 난상토론 결과 첫째, 최소한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원만한 사무운영을 위해). 둘째, 본교 입사후 1989년 2월 28일 이전 고졸자이어야 한다(당시 단체협약서는 대학당국자들의 내용 검토를 위한 사전인지를 하여 원만한 합의안을 창출키 위해 1월달에 사전 통보됐다). 세째, 차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사환은 20세 이하의 정년을 엄격히 시행한다라는 몇가지 원칙을 스스로 창출해냈던 것이며 이때 고졸 미필자들의 빠저린 사직을 감수해내야 했다. 그러면 1990년도 대학당국자들과 조합집행부간의 협약합의과정은 어떠했는가? 본인은 그 당시 역대 어느 행정책임자들보다 신뢰있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장담한다. 무려 29회에 걸친 협약일정에도 불구하고 강경주의자로 지칭되는 본인이 파업등 극한 상황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 당시의 행정책임자에게 신뢰감을 표명하고 싶다. 당시에도 약간의 논란이 됐던 상근사환의 호칭변경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으나 노조측에서 주장하는 대학의 인사행정 과실로 인한 책임을 이유로 "상근사환 직급으로 56세까지(당시 용원직급의 정년과 동일) 근무하도록 하겠다". "차후 대학행정 계통의 위계질서 문란시 모든 책임을 물어 외대를 사직토록 하겠다"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타당성을 강조하여 의견조정후 합의체결할 수 있었다.

물론 대학에서는 이들의 연장근무를 계속 요구할 경우를 우려했으나 당사자들의 합의안이며 이는 신뢰와 도덕적 문제임을 상기시켜 현재는 해당 당사자가 18명중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사무보조원직급에 대해서는 자동 인사폐기될 한시적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992년 7월 입사자가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되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며 무지로 인한 과거행정의 답습에 의한 결과물로 파생된 대학행정의 오류라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 (규정을 적용하려면 1992년 당시 채용하지를 말았어야 함)

현재 우리대학은 2천년을 향한 국제화, 세계화의 슬로건속에 지적수준의 향상을 시급히 도모해 나가야 할 때다. 그럼에도 행정과실로 인한 문제점을 논리가 맞지않는 방법으로 또한 국내에서 가장 치부시되는 남녀평등고용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명분을 갖고 무조건 실리만을 취하는게 아니라 개개인에 대해 적을 만들지 않고 협조자와 헌신자로 변신시키는 것이 대학발전에 모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오류, 행정의 오류는 과감히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할 것이다.

대학은 조속히 당사자와 합의점을 찾아 오합분열 없이 대 외국어대학의 건설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입증한 사건 하나.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95 전국대학평가에서 본교가 작년에 이어 교육재정·교육내용·교육환경 부문에서 밑순위를 맴돌았다는데…

그나마 상위권에 든것도 졸업생 평판도, 계열별 부문별 설문조사 두가지 였다고.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있어도 투자는 미흡하고 그것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니 천상 외대의 주인은 학생인 셈.

〈노〉

○…5·18 학살자를 심판대로!

이틀동안 전국 방방골골에서 젊은이들의 이같은 함성이 동시에 들려왔었는데, 크로니클자 알아본 즉, 전국 백여개 대학생들이 5·18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이틀 동맹휴업에 들어갔는데…

파란 지붕밑에서 웃고 있는 그대, 휴업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가 아닐런지…

〈정〉

크로니클

○…'꿈의 복원' '95 세민제 준비로 한창 들떠있는 이문동에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

상대 몇몇교수님께서 '더이상 세민제가 외대를 대표할 수 없다'며 대학당국의 재정지원을 쌍수를 들고 말리셨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점점 더 빛이 바래가는 외대를 살려보자는데, 교수님들! 동참합시다.

〈진〉

○…그래도 정의와 진실은 승리한다!!

국보법으로 구속된 박창희 교수가 안기부·검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데… 교수님 힘내세요. 진실이란 별은 어둠속에 오래 숨어있지 못하니까요.

〈우〉

○…몸도 특소세 인하(?)

한·미 자동차 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로 외국차의 국내 진입이 쉬워진다는데, 이러다가 우리차 남아 날런지…

정부 당국자 양반들!

외제차 타고 다니며 몸까지 특소세 인하해서 수입하실라우?

〈형〉

몸도 특소세 인하

□ 본교 제5차 교육과정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①

신입생 시절부터 '경쟁'… 교육정책 90도 선회

소수 위한 배치검사 … 절대평가 고수해야

다전공제, 3공때 실시 '유명무실'

△교양중심의 다양하고 보편적인 교육 △경쟁을 통한 소수 엘리트 교육 추구 △학사관리 강화 △지역학 도입 후퇴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본교 제5차 교육과정개정안, 교수·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에 그 구성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보완해야 할 측면이 많다. 또한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18일(월) 열린 중앙교과과정심의위원회에선 '실용영어 8학점(1학기 2학점, 4학기)·교양 총 24학점을 이수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결정됐다. 실질적으로 위 두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보류'가 된 셈이다.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는 전체교수회의는 늦어도 11월경 소집돼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필수학점 최소화, 선택학점 최대화 △조기졸업 가능폭 확대 △교양의 대폭 개정 △수강인원 상한에 따른 분반제 △강의실 활용 증대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양의 전폭 개정과 복수전공의 문턱을 낮춘 것은 변화하는 시대정세에 부합하는 시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개정안 소연구원 이은진(교육학)교수가 본보(649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5·31교육개혁안 등 일련의 교육 조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듯이 이번 개정안은 현 정부의 5·31교육개혁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정안에서 보완되거나 재고, 또는 보충돼야 할 측면을 살펴본다.

다전공제, 위험성 다분

5·31교육개혁안과 본교 개정안과 근본 취지가 동일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으로 복수전공 실시'는 이미 70년대 박정희정권에서 시행된 적이 있다. 현정부는 '다전공제를 위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실시'를, 박정희정권은 '부전공제(전공 이외 과목을 선택해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 및 복수전공제(제1전공 이수 후 2학기 정도 수강해 제2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수만큼 학점을 취득하면 복수전공 학위 수여)'를 도입했다. 이당시 복수전공제 실시 대학은 73년 8개교, 74년 5개교, 75년 2개교, 76년 1개교, 77년 1개교로 73-77년 통산 전체 17개교였다.

그러나 시간표의 중복, 부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 결여, 취업에서의 부전공 효용성 부재 등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됐다.

같은 위험이 재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정책 결정권자들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상대평가·실용영어 운영 '경쟁' 부추겨

전과목 상대평가제 도입과 '실용영어' 운영방안도 고려할 측면이 있다.

"소위 'A폭격기'라 통칭되는 교수들의 강의에만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대학당국은 시행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수만의 고유 영역인 '교수권'을 침범하고 안 그래도 '점수따기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을 '경쟁'으로 몰아넣을 위험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절대평가제와 비교해 같은 80점이라도 이전엔 B⁰ 시행이후엔 C이하로 평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신청시에 수강인원이 적은 강의를 듣기위한 학생들의 새로운 '눈치경쟁'의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노력한 결과만큼 점수를 받게 하는 '절대평가제'가 타당하다.

학생들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배치검사(placement test) 결과로 4등급으로 분반하여 수강케하고, 상위 단계에 합격하면 하위 단계 해당학점과 평점을 부여하는 실용영어 운영방식은 두가지 한계가 도출된다. 첫째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배치검사는 외국에서 살다 온 몇몇 특례입학생과 외국어고 출신 우등생 등의 '소수'를 위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영어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수임에도 그들의 수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로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에 적응도 되기 전에, 입시위주 교육의 잔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새로운 '경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이다. 또한 '외국어학원 다니는 외국어대 4년생'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만으로 부족하다는게 학생들의 중론이다. 전담부서인 실용영어부가 창설돼 교육의 질을 높이더라도 매학기말 실시하는 배치검사에서 진급하기 위해선 '영어과외'가 또다른 부담으로 학생들에게 자리잡을 것이다. 차라리 실력이 뛰어나거나 모자라는 학생들은 정규수업 이후 특별반을 편성, 따로 보강 비슷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학 위한 과도체제 구축해야

개정안은 "지역학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본교의 대안은 △지역학 전문인력 편중 해소 △학과 중심제 극복 △학제간 연구분위기 조성 등이다. 또한 지역학의 정의를 "어문학 관련 교과목 이외의 전공교과목"이라 정의하고, 동서양어대 최소 8학점·동서양학대 최소 12학점 전공선택으로 규정해 이전의 결정에서 일보후퇴했다.

더이상 그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될 지역학 도입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대안일 수 없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94년 11월 13일(일) 본교의 자료와 커리큘럼 등을 검토하기 위해 안병만 총장의 초청으로 본교를 방문한 미국학 연구가 에드워드 이코빅(Edward Ifkovic)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내 지역학을 공부하는 대학들은 1백60~1백80학점 이수에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지역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로 학부제 도입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유사학과 통·폐합 정책'과 '계열별 학생모집 및 계열별 교육과정 운영정책(학부제)'를 발표, 우리나라 대학의 학과 세분화 현상을 줄이고 계열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세분화된 전공과목 이수부담을 줄여 주고 학과간 벽을 제거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다전공 복합학문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각 대학에선 기존학과를 통·폐합하는데서도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대부분 학교당국의 밀실행정에 의해 추진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예가 성균관대·세종대·덕성여대 등 각 대학에서 학생들의 반발로 인한 학내분규가 잇따르고 고려대에서는 지난 1학기에 이 문제로 보직교수들이 전원 사퇴하기까지 했다. 아직까지는 학부제 완전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지역학 도입을 위해선 학부제로 전환해야 하나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학생들을 모집할 때 동일계열내 다과 복수지원 가능을 전제로 하고 계열별 시험을 쳐서 학과별로 모집해야 한다. 또한 '과'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학부를 단과대학내에서 운영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집한 학생들을 자기 과 전공이외에 '공통전공'이라는 명칭으로 복수전공이 가능토록 하되 동일계열은 2학년 때부터 가능하게 다른 단과대 전공은 현행 운영대로 졸업 이후 복수전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1학년 이후 일정시험을 치루고 엄격한 통제하에 전과가 허용된다면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면서 복수전공·학부제 도입을 이뤄낼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에게 제안하는 바이다.

후배에게 물려줄 외대의 모습은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은 교수, 학생·직원이다. 소수의 교수중심으로 논의돼온 이번 개정안은 다수가 그 대상임에도 그 다수와 공유 내지는 협의도 되지 않은 채 전체교수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5·31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학내문제로 인한 대학가의 분규는 대부분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각 학교의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속에서 학생들의 입장이나 의견을 무시한 데서 나오는 것이었다. 대학의 한 축을 이루는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96년 신입생, 아니 후배에게 물려줄 외대의 모습을 가꿔내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외대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외대인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곽근영 기자

비둘기철판

이문벌

□ 알립니다.

· 서어과가 "작은 영화제"를 합니다.
주제:동성애
때:5일(목) 3시-르네의 사생활
5시-아이다호
9일(월) 1시-모리스
3시-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5시- "
10일(화) 5시-크라잉 게임
11일(수) 5시-두여자의 사랑
곳:서어과 과방
〈서어과〉

· 제17회 FBS 방송제가 열립니다.
때:10월5일(목) 오후 6시
곳:대강당
〈F.B.S〉

· 목포 향우회가 카니발 준비관계로 모입니다.
때:10월2일(월) 5시
곳:노인정
〈목포 향우회〉

· 대원외고 체육대회 합니다.
때:10월7일(토) 10시
곳:대학원건물앞
*우천시도 강행
〈대원외고 동문회〉

· 잠재력 개발훈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때:10월6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2~4시
곳:학생생활 연구소(학생회관 2층)
P.S:미리 신청접수를 해야 합니다.
〈학생생활 연구소〉

· 시사 공개 토론회를 합니다.
주제:한국적 민주주의와 지자제
때:10월6일(금) 5시
곳:대학원 건물 104호
〈이태리어과 시사연구회〉

□ 축하합니다.

· 신랑 김강회(무역학과 졸업)씨와 신부 임성희씨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때:10월7일(토) 오후 2시
곳:세종대왕 기념관
〈면목고 동문회〉

왕산골

□ 알립니다.

· 짧은 만남 영원한 독어인 독일어과가 OKTOBER FEST를 합니다.
때:10월4일(수)
곳:노천극장
〈전진 독일어과〉

· 국토순례반이 가을 전시회를 합니다.
때:10월4일(수)~6일(금)
곳:학생회관 앞
〈국토순례반〉

· 광주 향우회 합니다.
때:10월4일(수) 오후 5시30분
곳:학생회관 깡통
회비: 예비역은 만원, 현역은 오천원
〈광주 향우회〉

· 「그림사랑」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이시대의 아픔을 만화와 판화로 표현할 참신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사랑〉

· 배·서문 동문회 합니다.
때:10월5일(목) 오후 5시 30분
곳:학생회관 깡통
〈배·서문 동문회〉

· 모현학사 95 가을 축제를 합니다.
전야제 기요제와 캠프 파이어
때:10월6일(금)
각종 체육대회, 박강성 콘서트
때:10월7일(토)
〈모현학사 자치위원회〉

· 참동이 아유회 갑니다.
때:10월3일(화) 이른 11시
곳:4호선 이촌역에서 만나 용산 가족공원으로
*도시락을 꼭 지참하세요
〈참동이〉

· 타임반이 Cover Exhibition을 합니다.
때:10월4일(수)~6일(금)
곳:학생회관 전시실
〈타임반〉

'비둘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기자실 2층 (0335)30-4112

'95 왕산체전 막내려

꽃다지 축하공연 열려

하나됨을 확인하는 대단결의 장 '95왕산체전이 28일(목)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 일정을 마쳤다.

축구 농구 족구 여자발야구 줄다리기 씨름 마라톤 등의 종목으로 용인캠퍼스 곳곳에서 치뤄진 체전 마지막날인 28일(목) 전종목의 결승전이 열렸다.

종목별 우승팀·준우승팀 △축구·노어과·유고어과 △농구·아랍어과· 무역학과 △족구·경제학과·환경학과 △여자발야구·아프리카어과·서반아어과 △줄다리기·물리학과·환경학과 △씨름·중국어과·수학과 △마라톤 1위:중국어과 2위:물리학과 3위:폴란드어과이다. 또한 마라톤 개인전에서는 박세진(동학·마인어 4), 김대희(자연·환경 1), 정성현(서학·노어 4)군이 각각 1 2 3위를, 여자부분에서는 최지영(자연·환경 1)양이 1위를 차지했다.

약 5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폐막식에서는 종목별 우승팀 시상식과 응원상을 수상한 서반아어과의 응원시범이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최우수선수로 농구경기에 참석했던 김구회(동학·아랍어 2)군이 선정됐다. 또한 FBS 교육방송국이 제작한 4일간의 경기모습이 담긴 슬라이드가 상영됐다.

한편, 폐막식이후에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의 축하공연이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과 함께 열려 참가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서울, 가을농활 옥구로…

용인, 10월말로 연기돼

농학연대와 통합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서울캠퍼스 가을농활이 지난 30일(토) 저녁 노천에서 1백 80여명 농활대원의 출발을 시작으로 3박 4일의 일정에 돌입했다. 옥구 일대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이번 농활에서 농활대원들은 수해복구, 고추따기 등의 작업을 통해 농민과의 유대를 꾀하고 5·18투쟁관련 전라북도 농민회차원의 서명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5·18투쟁여파로 일정상 무리가 많았던 가을농활을 준비한 중앙 준비주체 정대홍(서양·포르투갈어 3)군은 "각 학과가 학술제·예술제 준비와 5·18투쟁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라 농활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후에라도 각 과별로 농활을 꼭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 네덜란드어, 이태리어, 포르투갈어 등의 과와 사범대, 법대 등은 학술제 예술제등으로 이후 개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6일(금)부터 3박 4일간 예정됐던 가을농활 일정을 5·18투쟁을 이유로 오는 10월 마지막주로 변경했다.

대학단신

인도어과 체육대회 열려

양캠퍼스 인도어과의 연대를 위한 이문·왕산 인도어과 체육대회가 지난 30일(토)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손목축구 족구 농구 발야구 피구 여자 팔씨름대회 등이 오후 4시까지 열렸고, 이후에는 대동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캠퍼스 인도어과 과회장 박선학(4)군은 "체육대회를 통해 서로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바램을 밝혔다.

사시 2차 5명 합격

지난 27일(수) 발표된 제37회 사법시험결과 본교 졸업생 5명이 2차 전형에 합격했다. 합격자는 정세원(법·법학 85) 심재남(법·법학 85) 석윤수(법·법학 85) 김종환(법·법학 79) 주정대(상경·경제 78) 등이다. 최종합격자를 가리게 될 3차 시험은 오는 10월 19일(목) 예정돼 있다.

산악회 영남 알프스 등반

서울캠퍼스 산악회는 영남 알프스 등반을 오는 30일(토)부터 3박4일 동안 진행한다.

운문산, 가지산 등지를 등반할 산악회원 임일건(서양·독일어 4)군은 "선배들과 등반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라며 "경북대 산악회는 본교 동문인 고정도(경북대 일문과) 교수가 지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위 여성 주간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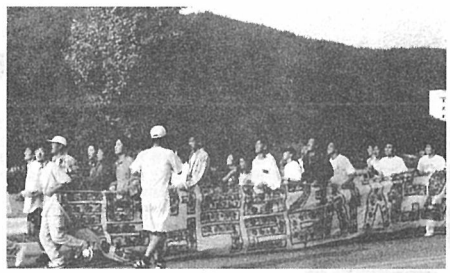
'현실속의 자리매김'이란 주제 아래 서울캠퍼스 여학생위원회는 지난 26일(화)부터 비디오 상영과 초청강연을 중심으로한 여학생 주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여학생위원회 선전국장 강금형(서양·불어 4)양은 "여성문제는 주위에 산재해 있는데 행사때만 잠시 얘기되고 마는 현실이 아쉽다"라며 지속적인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비쳤다.

초록회 장학금 마련 바자회

본교 여직원 모임 '초록회'는 장학금마련 바자회를 오는 9일(월)부터 3일간 미도파 백화점 협찬으로 대학원 소강당에서 열 예정이다.

바자회 수익금은 본교 근무중 사고를 당해 순직한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초록회 회장 김춘옥(총장비서실)씨는 "이번 바자회는 미도파백화점의 후원을 통한 것이므로 양질의 물건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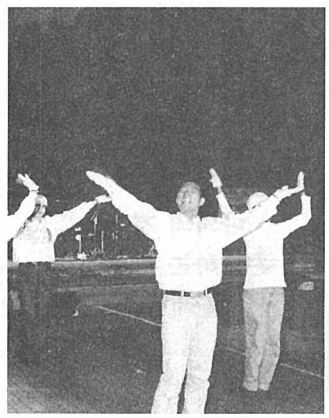


9월속의 5월

5·18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체전이 한창인 왕산골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별 단체마라톤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과 깃발을 앞세우고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코트의 왕자

왕산체전의 하이라이트 농구경기에서 무역학과가 이랍어과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한 학생이 친구들의 행가래를 받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하나됨을 확인하는 대단결의 장 '95 왕산체전

화끈한 '95 응원전!

응원상을 수상한 서반아어과 응원팀이 응원시범을 보이고 있다.
온몸으로 체전의 열기를 북돋아내는 학생들의 몸놀림이 경쟁함 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지막 한걸음 까지도

마라톤 단체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국어과가 테일을 끊으며 들어오고 있다.
학생회관에서 왕산주유소까지 왕복코스를 마치고 들어온 기수의 함성소리에 왕산골이 떠나갈듯 했다.

사진:정유정 기자

이사람

□ '95 세민제 준비위원장 김준우군을 만나

"세민제로 외대 전통을 세워 가겠습니다"

"세계민속예술제전(세민제)은 외대인을 하나로 모아내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라며 차분하지만 힘찬 목소리로 세민제 준비위원장 김준우(서양·서반아어 3)군은 세민제 부활배경을 설명했다.

오는 6일(금)에 열릴 예정인 세민제 준비에 바쁜 김군은 "외국문화의 참다운 이해를 통해 학문적 깊이를 향상시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라며 "매스컴이 보여주지 못하는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등 부족한 부분들이 외대 세민제가 메꾸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김군은 7년만에 복원을 꿈꾸는 세민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세민제는 1971년 개교기념 행사에서 유래했다며 "무리한 행사와 연습상의 어려움, 지나친 경비, 진부한 내용, 비어학제열과의 괴리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죠"라고 선배들이 비디오 또는 풍문으로 물려준 전설과도 같은 세민제 얘기에 지칠 줄 몰라했다.

지난 평가속에 현재의 세민제가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는 김군은 "세민제 폐지 이후 작은 세민제라는 이름을 걸고 대동제 속에서 많이 선보였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일학년때 저도 '외톨이와 외슨이의 배낭여행'이란 주제로 작은 세민제를 치뤘어요. 좀 제목이 유치하죠?"라며 멋적은 듯 웃는 김군은 세민제가 부활하면 더 많은 외대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단결할 수 있는 장이 될 거라며 또 웃었다.

이문·왕산이 함께하지 못하는 자리라 아쉬움이 남는다는 김군은 "복원으로 치면 제10회 세민제가 되는 셈인데 양캠퍼스가 함께 하지 못하는 세민제는 진정 그 뜻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이번 세민제를 '95세민제로 부르기로 했어요"라며 빠른 시일내 용인캠퍼스 학생들과 함께하는 세민제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6일이 되면 힘들었던 기억이 사라질 것 같아요. 또 힘들긴해도 아직까진 못한 일이 많이 남아 쉴 수가 없어요"라며 서두르는 김군의 모습이 세민제 준비에 바쁜 나날을 엿보게 해주었다.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학생들의 인식도가 낮아 고민입니다"라며 "95세민제는 자신의 숨은 솜씨를 보여주는 자리라기보다 외대생들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며 외대의 전통으로서 세민제를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5·18투쟁, 학술제로 바쁜 학교에서 역사의 복원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애쓰는 김군의 모습속에서 세민제로 더욱 빛날 외대의 미래를 그려본다.

오은진 기자

1996학년도

통역대학원 학생모집

1.모집과정 및 인원: 석사학위과정 ○○명
2.모집학과
가.한국어번역·통역부(2년제): 한영과·한불과·한독과·한노과·한서과 한중과·한일과·한아과
나.외국어번역·통역부(3년제): 한영불과·한영독과·한영노과·한영서과 한영중과·한영일과·한영아과
3.시험과목
가.1차시험: 공통영어·전공외국어
나.2차시험: 한국어·전공외국어 번역작문·구술시험
4.원서교부: 95. 10. 9(월) - 10. 25(수) 17:00까지
5.접 수: 95. 10. 19(목) - 10. 25(수) 17:00까지

통역대학원 설명회: 95. 10. 13(금) 15:00 대학원 105호

6.시험일시: 1995. 11. 4(토) 10:00부터
※ 본 대학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전문통역사와 다국적 국제정보교류에 일익을 담당할 번역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기관임.
※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바람.
〈전화 963-0558, 961-4112/3〉
▣주소: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1호선 휘경역(외대앞) 하차〉

한국외국어대학교

델라웨어대학교 동계 영어연수 안내

1.연수조건
• 연수장소: University of Delaware(미국 동부 소재)
• 연수기간: 1996. 1. 6 ~ 2. 18(6주간)
• 수업시간: 주당 24-26시간(주말제외)
• 반 편 성: 분반시험 성적에 따라 편성
2.소요경비
• 총 예상경비: USD4,655-
• 경비내역: 수업료(교재대 및 문화여행경비 포함), 기숙사비, 의료보험료 수속관리비(여권, 비자 발급 관련 비용), 항공료 및 관광비용(미국서부지역 및 하와이)
3.연수대상자 자격 및 선발
• 자격: 본 대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선착순 30명
• 지원시 배부 및 접수 일정: '95. 9. 25(월) - 10. 20(금)
4.특 전
• 연수과정 이수 후 취득한 성적은 '96년 1학기 교양과목 성적으로 최대 3학점을 인정함.
• 델라웨어대학교 교환학생선발시 우선권 부여
5.기 타
•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의 여권 및 비자 발급 관련 업무는 연구협력과에서 일괄 처리함.
• 연수기간 및 소요경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즉시 별도 공고함
6.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 배부: 각학과장 사무실 및 연구협력처
• 접수: 연구협력처(서울캠퍼스 본관 1층 소재, Tel.961-4040)

연구협력처장

공개강연회 안내

통역대학원에서는 세계적인 통역계의 석학 WALTER KEISER교수님(제네바통역학교 前원장)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일시: 1995년 10월 18일(수) 15:00
2.장소: 대강당(인문과학관 2층)
3.주제: The World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4.대상: 관심있는 모든 분
5.강의방법: 순차통역으로 진행

통역대학원

공 고

95학년도 법과대학 교양특강을 실시하니 학우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연사: 김진명
•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자
2.제목: 법과 문학
3.일시: 95. 10. 5(목) 15:00~17:00
4.장소: 대학원 6210호
5.대상: 전교생

95. 9. 25

법과대학장

모의TOEIC시험 실시안내

정부투자기관 및 대다수의 일반기업들이 입사필기시험(영어)을 TOEIC으로 대체함에 따라 본 취업정보실에서는 취업대비를 위하여 모의TOEIC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응시희망자는 취업정보실로 접수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95. 10. 20(금) 17:00~19:00
●장 소: 인문과학관 대강당
●대 상: 학년불문
●접수기간: 95. 9. 29(금)~10. 18(수)
●접수장소: 서울캠퍼스 학생취업정보센터
●응 시 료: W2,000
●시 행 처: 시사영어사

학생취업정보센터소장

□ 소개글 - '굿'이란 무엇인가

음악, 춤, 놀이로 즐기는 공동체험

굿은 논리나 설득이 아닌 "음악과 춤과 놀이로 함께 즐기고 나누는 공동체의 체험"을 통해 전승된다.

굿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이루어온 무속신앙(민간신앙)의 의식을 말한다. 넓게는 놀이판, 구경거리 등을 모두 굿('소리굿', '풍물굿')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무속신앙의 제의 형태로서 굿은 춤, 사설, 노래, 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맺힌 한(恨)을 풀어내고 생명의 의욕과 활력을 창출하며 모든 비정상적인 현실세계를 재정비 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굿의 성격은 현세중심적, 평화적, 인간중심적, 공동체적인 하나의 놀이판으로 볼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가족 내지 마을 공동체의 복을 기원하고, 단합(이를 '대동'이라 함)을 이루기 위해 굿이 행해진다. 이는 인간이 신을 닮으려고 노력한다거나 신에게 일방적으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을 조종하고 신에게 명령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위협이나 투쟁이 아닌 대화와 놀이, 음주와 가무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과 인간이 화해를 이룸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굿의 역사는 수난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초기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무당이 집단의 대표자였지만 제정이 분리되면서 무당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집단의 정신적 지도자, 문화적 창조자로서의 무당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치권력의 탄압과 박해로 최하층 천민, 광대로 그 지위가 격하되었다.

굿판에서는 "일대동이 만대동이 되고 만대동이 발대동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한 마을이 대동을 이루고 대동을 이룬 여러 마을이 모여 만대동을 이루고 결국엔 온 나라가 벌떼처럼 일어나 대동의 굿판을 벌이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대동을 이룬 민중들은 지배계급의 크나큰 위협이 될 것임이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굿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공공연히 지배층의 탄압대상이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명분을 무기로한 유생들에 의해 사당파괴, 무당축출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관권에 의해 대동굿인 당굿, 도당굿이 철저하게 금지돼 몰래 굿을 하다가 주재소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사례도 있다 한다. 또한 새마을운동이 한창 벌어지던 때 미신타파의 구호를 내건 정권에 의해 각 마을의 서낭당, 산신각, 굿당이 파괴되었고, 타 종교인들의 배타적인 비난은 전통문화의 뿌리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온 굿(무속)의 말살행위로 이어졌다. 이러한 탄압속에서도 굿(무속)은 불교 사찰에서의 산신각, 칠성각, 삼성각으로 흡수되거나, 굿속의 제석거리처럼 부처님을 무속의 한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존을 꾀했으며, 굿속에 유교덕목과 제사절차를 받아들여 그 생명을 유지했다. 요즘 기독교가 현세 구복적인 성격을 띠는 것도 무속과 융합되어가는 한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지난 날 서구적인 것은 무조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문화 식민지적인 풍토속에서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길러져왔다. 특히 굿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굿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종교로서가 아닌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굿을 배우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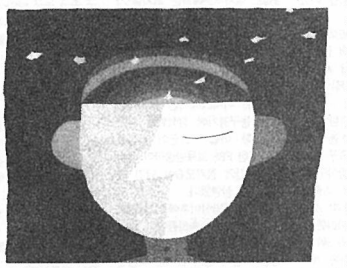
굿은 놀이를 통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해 발현되는 강력한 집단의식의 생명력과 역동적인 힘으로 억압받고 고통 받아온 우리네 민중들이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거나 극복하는 일정한 틀로 이해될 수 있다.

굿은 논리나 설득이 아닌 "음악과 춤과 놀이로 함께 즐기고 나누는 공동 체험"을 통해 전승된다. 이러한 혈연, 가족 공동체 의식이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확대되고 마을 중심의 가치관이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된다면 마침내 발대동을 이루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최 문 식 〈인문 · 사학 3〉

□ 심리상담을 받는 내용과 태도

상담은 마음의 거울을 보는 작업



상담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작업을 상담자와 함께 해 나가는 것이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 상담부장으로 일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간다. 상담자로 일하면서 가장 흔히 받게 되는 질문은 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을 요구하는지이다. 아마 일반인들은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한 것 같다. 이런 질문은 나를 당황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한가지 내용을 상담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상담에 오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이성관계의 문제로 신청을 했다고 해보자. 집에서는 지금 사귀는 여학생을 반대하고,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이제 4학년으로서 취업 준비도 등한히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해 졌으며 밤에는 잠을 자기도 어렵고 여학생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바람에 심한 우울감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이럴때 이 학생의 문제는 이성문제인가? 가정문제인가 잠재문제인가? 아니면 불안과 우울이 문제인가 불편증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성격의 문제인가? 문제의 유형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항상 귀결되는 결론은 '상담이란 삶 전체를 다루는 것이지 특정 유형의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두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의 의도는 아마도 "나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느냐, 당신이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를 보여줘야 당신을 믿고 상담에 임하겠다"는 의도의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 역시 필자를 곤혹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상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담에 온 학생(내담자)과 상담자가 함께 하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흔히 "상담은 자신의 마음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는 작업을 상담자와 함께 해 나가는 작업이다"라고 대답해 준다.

이 대답은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잡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미흡하기 짝이 없는 대답일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충고를 원한다. 그러나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답을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공부가 문제인 학생은 공부를 하면 된다.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 대답만큼 의미있는 대답도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그것을 문제라 해도 좋고 심한 경우는 중상이라고 해도 좋겠다. 결국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안다면 외부환경 속에서 자신을 활용하고 다스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상담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추구하며, 그 이상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용기를 지닌 사람이 택하는 선택이다.

신 경 진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상담부장〉

□ 서평-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나외의 것을 존중하는 관용 '똘레랑스'

유명서점과 PC 통신란의 감상문란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을 지금에야 읽게된 데는 나의 독서습관 때문이다. 베스트셀러보다는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책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심사숙고 한 끝에 집어든 후 새로운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는 점에서 그후로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파리 망명 중의 택시운전사의 체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그와 함께 역사적 체험의 무게를 실어 표현한 에세이 형식의 책이다. 작가 홍세화는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 '민주수호선언문' 사건으로 제적되고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빠리에서 고독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왜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며 이를 몸소 실천했던 지성인이 파리에서 망명생활을 하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점은 홍세화씨의 여권에 찍힌 '갈 수 있는 나라: 꼬레를 제외한 모든 나라'라고 씌여진 말귀를 보고 나서이다. 조국을 눈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의 처지와 그를 그렇게 만든 우리의 정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작자는 대학시절 하숙집 룸메이트인 택시운전사 친구를 보면서 그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 보고자 택시운전사를 꿈꾸기도 했다. 그때의 그런 생각은 하나의 생활방편으로서가 아닌 '의식(이념)'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생존'을 위한 직업으로 택시운전사가 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프랑스의 보다 발전된 사회 · 문화 · 교육 · 정치제도 등을 우리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진정한 '똘레랑스'의 의미를 도출해 내고 있다.

먼저 그는 자녀의 교육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교육제도와 큰 차이를 발견한다. 이미 그의 자녀들은 고교시절 때 루소의 '사회계약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볼테르의 '깡디드'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 괴테, 니체, 헤겔, 맑스, 레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과 사상을 고교 교육과정을 통해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프랑스 대학입학 자격시험(바깔로레아)에 철학과목을 포함시키는 세계 유일의 나라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비해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판단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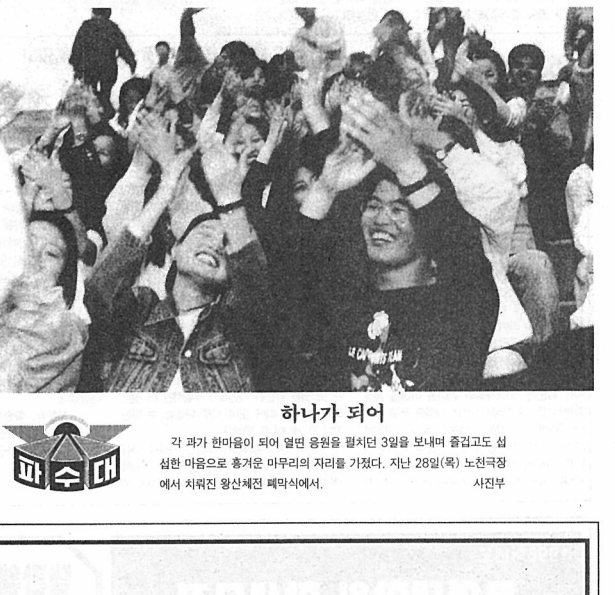
작자는 프랑스 사회의 '똘레랑스'에 대해 거듭 강조한다. '똘레랑스'는 관용 즉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의 자유 및 다른 사람의 정치적 종교적 의견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이 '똘레랑스'의 원칙은 종교뿐 아니라 사상, 외대인에게 까지 적용된다. 단지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50년에 가까운 세계 장기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비하면….

프랑스인의 똘레랑스가 프랑스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으로 정착되어 있음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린 타인의 의견을 수렴, 인정해 주는 아량과 관용의 덕목이 결여되어 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믿음만을 남에게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적대관계로 돌변하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이러한 '똘레랑스'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나의 지나친 억측일까. '똘레랑스'는 극단주의를 외면하며 비타협보다 양보를 처벌보다는 포용을 힘의 투쟁보다는 설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본원리라고 작가는 다시금 힘주어 말하고 있다.

사회의 각 분야 즉 가정, 사회, 학교, 국가가 이런 똘레랑스를 본받고 지켜나갈 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똘레랑스가 한 차원 구현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 춘 백 〈동양 · 터어키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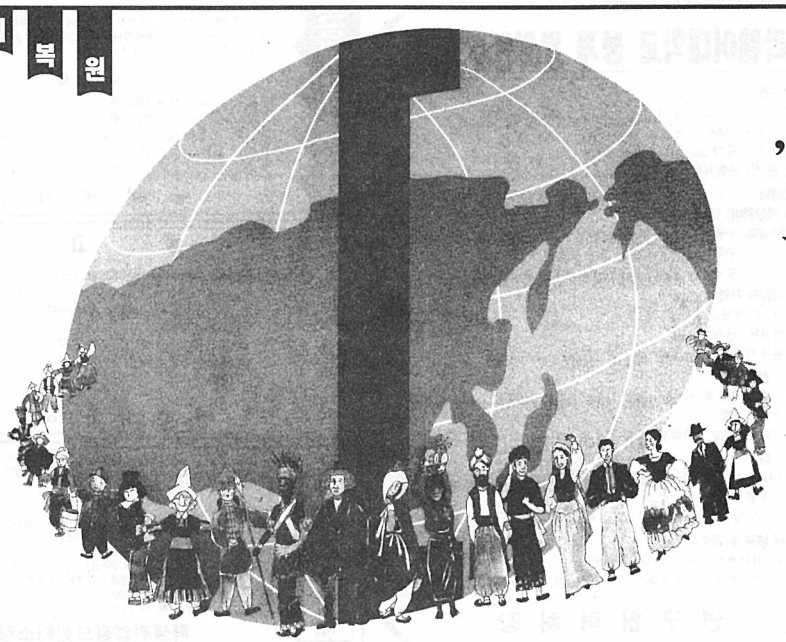


파수대

하나가 되어

각 과가 한마음이 되어 열띤 응원을 펼치던 3일을 보내며 즐겁고도 섭섭한 마음으로 흥겨운 마무리의 자리를 가졌다. 지난 28일(목) 노천극장에서 치뤄진 왕산체전 폐막식에서. 사진부

꿈의 복원



'95 세계민속예술제

꿈의 복원 향한 당당한 외침

■ 일시: 6일(금)
■ 장소: 이문동 노천극장